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너 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77호

Wednesday, January 28 2026 A

워싱턴 지역 폭설 후 유증 오래간다

'진눈깨비 폭탄' 복구 장기화 전망

지난 주말 워싱턴 지역 적설량이 작년 보다 적었으나 그 후 유증이 훨씬 오래 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기상청(NWS)은 이번 폭설로 워싱턴 지역 잠정 집계 적설량이 5.5인치에서 9인치 사이를 기록했으며, 작년 1월(5일~6일) 적설량 10인치에 미달하고 2월(11일) 적설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최대 8.5인치였다. 눈의 양이 많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큰 이유는 눈에 이어 내린 진눈깨비와 빙판화다.

워싱턴 일원에 진눈깨비가 2~4인치 내렸으며, 이는 1994년 2월 4일 기록 이후 최대치였다. 진눈깨비를 물의 양으로 환산하면 20인치 이상의 폭설이 추가로 내린 셈이다.



이번 폭설로 워싱턴 지역 잠정 집계 적설량이 5.5인치에서 9인치 사이를 기록했다.

진눈깨비는 눈보다 밀도가 높아 도로 위에서 쉽게 녹지 않고 단단히 뭉친다. 이후 기온이 낮게 유지되면 얼음덩어리로 굳어 제설, 제빙을 어렵게 만든다. 이번에도 폭설이후 혹한이 이어지면서 복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전피해와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버지니아 전기회사 도미니언 에너지에 따르면 폭설 기간 중 약 4만8천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으며, 주 전역에서 접수된 수백건의 폭설 관련 사고가

운데 북버지니아에서만 58건의 사고와 4건의 부상 사고가 보고됐다.

이번 폭설은 미 전역에 큰 피해를 남겼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얼음비가 전선과 나뭇가지를 깨어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매사추세츠와 오하이오에서는 제설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아칸소와 텍사스에서는 썰매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캔자스에서는 눈 속에 파묻힌 여성의 시신을 경찰견이 찾아냈고 뉴욕시에서는 혹한으로 8명의 사망자가 길에서 발견됐다.

지역 당국은 당분간 기온이 낮게 유지될 경우, 도로와 보도에 남은 눈과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출근길과 통학,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결빙 구간 주의를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한국에 관세 25% 인상

"한국 국회가 합의 비준 안해"
상호관세·차·제약·목재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간)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각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이 관세를 낮추면 상대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관세 조정과 직결시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구 기자

시민 피살 후 폭풍에 트럼프 "진상규명"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 요원들이 잇따른 총격으로 시민권자 2명이 숨지는 사건(본지 1월 26일자 A-1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투명한 진상 조사와 이민 단속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상 조사를 위해 미네소타주립 월즈 주지사와 직접 통화하고 백악관 국경 보호 및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를 미니애폴리스에 파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26일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시민권자인 알렉스 프레티(37)와 르네 니콜 굿(37)을 사살한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파견한다"며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 투입된 연방 요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어 연방 하원의원(공화)

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세관단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연방요원에게 사살된 알렉스 프레티를 추모하고 있다. [로이터]

속국(ICE) 철수를 요구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국경수비대 요원 일부가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프레티 사망 사건에 대해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이 공동 수사

를 진행 중이며,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정부 산하 범죄수사국(BCA)과 헤네핀 카운티 검찰 등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에서는 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인들에게도 단속 상황에서 ICE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미네소타 지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연방법원도 이민 당국 요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보존을 명령하면서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에 힘을 실리고 있다.

김형재 기자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카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풀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카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풀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사고후
서류 처리

치료 전문
LMT마사지

각종
보험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했지만…한국은 약속이행 진전없어”

백악관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설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 선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인 같은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세 개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 1일자)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X-엣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대한국 관세 인상을 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웃자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 관계기사 12-13면

버지니아 의회 유급병가 법안 추진

최대 12주 보장

DC-MD는 이미 시행

버지니아 상하원의회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올해 정기의회에서 유급병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공화당과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연간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질병 치료 및 간호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과 입양을 위한 휴가로도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한 제니퍼 보이스코 상원의원은 “모든 버지니아 주민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휴가를 쓸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페이퍼 텍스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한 재원으로, 유급병가를 쓰는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게 된다. 유급병가를 얻은 직원에게는 기준 임금의 최대 80%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작년에도 양원의회를 모두 통과했으나 글렌 영킨 주지사가 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



리치먼드 소재 버지니아 주의회 전경.

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기업비용 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근로자 고용이 축소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현재 메릴랜드와 워싱턴DC 모두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1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0시간 근무 당 1시간의 병가를 적립하고 연간 최대 40시간(5일)의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워싱턴DC는 버지니아의 법안과 매우 흡사한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중이다.

다.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매월 페이퍼 텍스로 재원을 충당한다.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2015년부터 연방정부 공무원 및 하청용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률로써 모든 근로자의 무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유급병가 보장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메릴랜드 등 15개 주와 워싱턴DC가 별도의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메타, 청소년 AI 캐릭터 채팅 차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라며 새 버전이 출시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기준 AI 캐릭터 접근을 차단한다고 최근 밝혔다.

메타는 이와 같은 접근 차단이 수주 내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 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

자는 물론이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출시될 AI 캐릭터 버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AI 대화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성·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리콜 대상은 2025~2026년형 G80과 GV80 그리고 2026년형 G80 전기차, GV60, GV70 전기차, GV700이다.

제네시스는 오디오와 비디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무선(OTA) 또는 딜리에서 무료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소유자에게는 3월 16일에 우편을 통해 리콜 안내가 전달될 예정이며 제네시스 고객 서비스(844-340-9741)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하다. 회사 내부 리콜 번호는 031G이며 웹사이트(nhtsa.gov)에서도 차량식별번호(VIN)로 확인할 수 있다.

송영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29일(목) 25-8
	30일(금) 26-10
	31일(토) 23-11
	1월 28일(수) 27-9
	1일(일) 28-16
	2일(월) 33-19
	3일(화) 37-16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10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2

1석 5조 통합보험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Life Columbia Life Insurance Company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IA Aetna National Western Life AXA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지니스 응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먼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워싱턴 '생명을 위한 행진' 대성황...트럼프 특별 메시지

전국서 수만여명 운집
한인 청소년 다수 참석

미주 최대 규모의 연례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23일 워싱턴DC 내셔널 몰과 연방의회 인근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을 위한 행진'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학법상의 권리로 선언한 '로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1974년부터 매년 1월 셋째 주 금요일 개최돼왔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폐기됐다.

주위가 엄습한 이날 오전 11시, 워싱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 참가자와 지역 한인들이 현수막을 들고 워싱턴DC에서 행진하고 있다.

던DC 내셔널 몰에 걸집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1시까지 기념행사를 가진 뒤, 이후 2시까지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거짓말이다.

아기들은 결코 죽기를 선택하지 않는 다"는 구호를 외치며 연방의회를 향해 거리 행진을 전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로대 웨이드 판결



이 뒤집혀 여러 주에서 생명 존중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에서 생명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메시지에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엄성을 존중하고,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여성들을 계속해서 돌보며, 모든 아이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과 위탁 양육을 더욱 의미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 밴스(사진) 부통령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가족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 외에 마이크 존스 연방 하원의장과 주요 인사들이 연설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특별히 워싱턴을 찾은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 참가자 30여 명과 다수의 한인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김성한 기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회 회계감사

2025년도 재정감사 완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는 24일 자체 회계감사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 11시 김인철 회장을 비롯해 최민엽 재무부장 겸 회계사, 김덕만·김종준 감사, 이해월 상조위원장 등은 애난데일 소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2025년도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계장부 등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연례 감사를 마쳤다.

최민엽 재무부장은 감사에서 2025년 총 수입은 3만375달러이고, 지출은 2만



오른쪽부터 김종준·김덕만 감사, 김인철 회장, 이해월 상조위원장, 최민엽 재무부장.

8268달러로, 지난해 이월금을 합쳐 현재 잔고는 4389달러라고 설명했고, 이에 김덕만·김종준 감사가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하지가 없어 최종 서명을 했다.

김성한 기자

금값 5100달러...사상 최고치 돌파

26일 금 가격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5100달러를 돌파했다.

현물 금 가격은 GMT 11시40분 기준 온스당 5091달러61센트로 2.2% 상승했으며, 장중 한 때 치고지인 5110달러50센트를 기록했다. 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도 같은 폭으로 상승하여 5089 달러90센트를 보였다.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 통화정책 완화,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2025년에 64% 급등하며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여전히 경신시켰다.

분석가들은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와 중앙은행 및 소비자들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 금값이 올해 더 오를 여지가 있으며, 잠재적으로 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한 기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울파손 ■ 마약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IKEN 임원진이 한국어 교재 '글로벌 코리안 텍스트북'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엘렌 박 이사, 김성순 회장, 수지 오 이사장, 김혜자 이사.

IKEN의 한국어 교재 '글로벌 코리안' 돌풍

언어 넘어 정체성 확립 통로로

세계한인교육자네트워크(IKEN)가 제작한 한국어 교재 '글로벌 코리안' 텍스트북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IKEN은 한국어 보급을 넘어 공교류 시스템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의 지속 가능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해왔다. 현재 한국어 교재 개발을 비롯 해 교사 전문성 연수, 한국어반 개설 지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코리안' 텍스트북 시리즈는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교사용지도서, 워크북, 전자책(e북)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순 IKEN 회장은 "문법 습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워크북 역시 반복 연습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언어를 구성하고 표현하도록 돋는 활동 중심의 학습 도구로 활용된다.

수지 오 이사장은 "글로벌 코리안은 언어 학습을 통해 정체성과 경험을 탐색하도록 교재 전반에 구성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족과 언어, 문화적 배경과 연결해 한국어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며,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민과 디아스포라, 공동체,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도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글·사진=송윤서 기자

무장 강도 한인 체포... 보석금 15만불

40대 한인 남성이 텍사스주 미들랜드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다.

미들랜드카운티 세리프국은 다니엘 안(47)씨가 지난 13일 사우스 하이웨이 5200블록 인근 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다고 23일 밝혔다.

강한길 기자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안씨를 검거했다.

그는 현재 미들랜드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15만 달러로 책정됐다.

강한길 기자

① 중앙일보 구독 신청 : 703-281-9660

LA 한타 마켓 주차장서 대낮 강도

장보고 나온 한인 시니어 습격 현금·명품백 등 수천 달러 탈취 반복되는 범죄에도 경비 미흡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시니어를 노린 강도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해 남가 주 지역 한인 마켓 주차장에서 70대 한인이 강도 피해를 입은 데 이어서다.

피해자는 아케이디아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김씨(65)로, 사건은 지난 18 일 오후 1시 30분쯤 LA 한인타운 한남 체인 마켓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김씨는 교회 예배를 마친 뒤 마켓에 서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나와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던 중이었다. 이 때 가방을 트렁크 옆에 내려놓자 모자

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히스패닉계 남성 1명이 접근해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김씨가 이를 막아서자 용의자는 김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뒤 가방을 들고 차량을 타고 현장을 달아났다.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은 짙은 흰색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무릎, 팔꿈치에 출혈과 멍을 입었으며, 휴대 전화를 함께 빼앗겨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시큐리티 가드가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경찰에 강도(robbery)로 접수됐으며, 김씨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현금 약 2000달러와 3000달러 상당의 명품 가방을 도난당

했으며, 차량 키도 함께 빼앗겼다. 이후 서비스센터를 통해 키를 교체하는데에만 1300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건 이후 주거지 안전을 우려해 집 열쇠를 교체하고 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했다. 가방 안에 지갑과 차량 키, 신분증, 카드, 주소 정보 등이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차량 도난을 우려해 현재는 차량을 집 안쪽에 주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출입을 막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마켓 입구 인근에서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울고 있었지만, 한인들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DMV 예약 무의미할 정도로 대기시간 길어

리얼ID 재발급 신청해보니 일방적 취소로 32만명 불편 슬로모션 행정 과부하 상태 무료주차가 유일한 위안

지난 23일 오후 링컨파크의 차량등록국(DMV)에는 민원인 약 6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은 리얼ID 재발급 안내문을 갖고 있었다. 가주차량법과 리얼ID 지침에 따라 면허증이 23일자로 취소되며, 재발급을 위해 체류신분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취소 통보를 받은 이는 약 32만 명에 달한다. 가주차량국(DMV)의 시스템 오류로 유효기간이 잘못 설정돼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행정조치였다. 아무 잘못도 없이 갑자기 취소당 한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가뜩이나 업무 과중과 장시간 대기로 악명 높은 DMV가 난데없는 32만 건의 리얼ID 재발급 탓에 또다시 과부하 상태가 됐다. 2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 리얼ID가 없으면 4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니,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링컨파크 DMV에선 신청서 작성용 컴퓨터 4대가 설치돼 있고, 직원 응대 창구는 약 10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면허 신청과 갱신, 차량 등록 등 다양한 민원에다 리얼ID 재발급까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엔 행정력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기번호 호출에 혼선이 발생했고, 한 방문자는 약 2시간 가까이 기다린



지난 23일 링컨파크 DMV를 찾은 시민들이 직원들과 상담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끝에 다시 체크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부 창구에선 볼 일을 다 마치고 직원과 인생상담이라도 하듯 사담을 늘어놓는 이도 있었다. 대기줄은 자꾸 늘어질 수밖에. DMV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선 적잖게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이용객을 만족시킬 수준은 아직 아니다.

26일 할리우드 DMV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선 예약 방문자 30여 명, 번호 호출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40여 명에 달했다. 안내 직원은 "리얼ID를 재발급받으려는 민원이 부쩍 많아져 하루 방문자의 절반쯤 된다"고 말했다.

예약제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지만, 긴 대기 시간은 예약을 무의미하게 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예약한 시민 하마로는 "30분 정도를 기다린 뒤에야 재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며 "이럴 거면 예약 시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피스 밖에는 예약 없이 찾아온 약 2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이 없어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페스트 네임만 밝힌 제이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대기해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예약 없이 방문한 대기자들의 줄은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거의 줄지 않았다.

DMV 안의 전광판에는 "DMV의 새로운 디지털을 즐겨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DMV의 유사 디지털 행정과 슬로모션의 맛을 보라는 정도로 야유하지 않을까.

오랜 대기시간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DMV를 빠져나오면서 유일하게 받은 위안이 있다. DMV 주차장은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무료라는 점이

송윤서 기자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남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타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9 ~ 2/13 → 전화 예약 필수!
Home Care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작나리별 언어를 예상, 관리하는 차별화된 흐 kê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A)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자극 말고 일단 다른 뒤 나중에 법적 대응”

항의하거나 따지면 상황 악화
침착하게 묵비권 행사만 할 것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バ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과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지난 17일 카톨릭 지역의 한 교회를 급습해 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official.bb/틱톡]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

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

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대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이민국, 급행 수수료 3월 인상

H-1B, E-3 신청서 2965불로

F·J비자 연장·변경서 110불 올라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 서류에 적용되는 급행 수수료(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된다. 인상폭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72%를 반영한 것이다.

USCIS는 3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과 다른 수수료로 접수된 급행 처리 신청서는 모두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H-1B, L-1, O-1, TN, E-3

비자 신청서(Form I-129)와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F·J·M 비자 소지자의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I-539)의 급행 수수료는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오른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77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해당 재원은 심사 지원과 적체 해소,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 유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

에어프레미아,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에어프레미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노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한국시간) 밝혔다.

항공기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개인

전자기를 충전하는 것이 제한된다. 보조배터리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승객은 한국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 지침(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하고, 절연 테이프를 보

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한 뒤 좁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관리 기준에 따라 리튬배터리 관련 유실물 발견 시 즉각 폐기하고 있다.

현대차, 2년 연속 도난 차량 1·2위

보험료 전국 평균 23% 높아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 1·2위에 현대자동차 차량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보험 비교 플랫폼 인슈어리파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현대 엘란트라와 소나타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엘란트라는 18개 주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 도난 건

수는 1만1329건에 달했다. 현대 소나타도 같은 기간 9154건의 도난이 발생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혼다 어코드(8531건), 쉐보레 실버라도(8006건), 혼다 시빅(6396건) 순으로 도난 건수가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엘란트라의 연평균 종합 보험료는 27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23% 높았으며, 소나타 역시 2663달러로 전국 평균 대비 2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윤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 운자의 끊임
달인과 함께하는
운자는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M&T
대장금(미국조 물)
체밀리노리방
Pine Orchard
40
300m
뉴타운

Baltimore National Pike
Veirs Mill Rd.
Atherton Dr.
Belvoir Dr.
Ranleigh Rd.
Jefferson Pk. Ctr.
Glenmont Dr.

영아패션 ★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지지율 최저 트럼프, 이민단속 수장 바꾸고 “공정 수사”

(최임 2기 기준, 38%)

미국인 58% “ICE 단속 지나치다”
트럼프 ‘강경 단속책’ 배제 가능성
적대적 관계 월즈 주지사와 통화
NYT “총격 공정하게 조사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네소타주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작전 책임자를 교체했다. 자신을 비난해 온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통화했다.

지난 24일 숨진 미국인 알렉스 프레티(37) 사건도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자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대신 백악관 국경 보호 및 이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을 미네소타에 급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적었다.

CNN은 호먼이 ‘국경 차르’로 불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지만 “이번 교체로 강경 전술을 잠재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를 (트럼프가)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본인의 이민 단속 정책을 비난해온



26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설치된 고(故) 알렉스 프레티 임시 추모 장소 인근 창문에 충탄 구멍이나 있다.

[AFP=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월즈 주지사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는 “월즈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월즈 주지사도 “통화가 생산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뉴욕타임스(NYT)

는 “총격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미네소타에 배치된 연방 요원 수를 줄여 달라는 월즈 주지사의 요구에 트럼프가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총격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를 통해 사실에 따라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토안보부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이 활발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 직후 트루스소셜에 프레티를 ‘총격범’이라고 지칭하며 그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총을 쏘려 했다고 주장하

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트럼프의 잇따른 유화 메시지를 두고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ICE에 등을 돌리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과 임소스가 미국 성인 1139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 약 3%p) 결과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강경한 이민 단속이 꼽혔다.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3%로 ‘지지한다’는 응답(39%)을 크게 앞질렸다.

특히 ICE 요원들의 단속이 ‘지나친다’는 응답은 58%에 육박해 ‘충분하지 않다’(12%) ‘적절하다’(26%)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ICE 요원들의 단속이 지나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선 92%, 공화당 지지층에선 20%로 갈렸지만, 무당층은 10명 중 6명(63%)이 지나친다고 평가했다.

반(反)ICE 시위는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보스턴, 로스엔젤레스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수천 명에 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구 기자, 강태화 기자

북, 600mm 초대형 방사포 도발…당 대회 앞두고 존재감 과시

동해로 여러발 발사, 350km 비행



북한이 27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쏘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 체계의 “군사작전상 대량으로 집중 이용”을 주문한 가운데 성능 개량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기적으로 다음 달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력 도발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 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각각 350km~400km를 비행한 뒤 동해 알

섬 등에 탄착했다. 비행 특성을 고려 할 때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동해 상의 표적지에 적중하는 시험 등을 통해 사거리 개선과 타격 정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600mm 방사포는 사거리 400km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북

한의 방사포 체계를 가리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라 “전략적 공격 수단”이라고 했다. 600mm 방사포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대화력전 수단이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걸 시사한 셈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방전략서(NDS)가 북한을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유정 기자

중국 서열 2위 장유샤 전격 숙청

시진핑, 4연임 종신집권 포석
군실세 이례적 ‘속전속결’ 제거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서열인 장유샤(사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낙마하면서 그 배경과 과정에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 부주석은 제복 군인 중 최고위직으로 시 주석의 측근이자 군부 내 ‘실세’로 통해왔으나 지난해 제기된 ‘시 주석 실각설’에서 시 주석과 대립하는 세력의 중심인물 격으로 지목돼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 최고위급 숙청은 시 주석이 내년 당대회에서 결정될 4연임과 나아가 종신집권까지 염두에 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충성파로 군수뇌부를 채우려는 정지작업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부주석의 숙청은 그가 군부 최고 위치이자 시 주석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졌다.

장 부주석의 부친 장쭝췬 상장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순 전 부총리와 산성 고향 친구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우로, 장 부주석과 시 주석 역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의형제’ 같은 사이로 알려졌다.

UCSD의 중국 전문가 벽터 스 부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유샤와 시 주석 사이의 깊은 우정을 고려하면 (장 부주석의) 이번 배신의 성격은 상당히 나빴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숙청

을 진행하고 발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장 부주석은 지난달 22일 상장(대장) 진급식에 참석했고 지난 12일 열린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신변이상설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일 장관급 당정군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세미나에 불참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국방부는 이후 나흘 만에 장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회(연합 참모부 참모장)의 ‘기율위반·불법’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짐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세자장 사업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구입하거나 매물 주시면 구입/매매 해드립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임대료 월\$600, 가게 위치좋고 아담합니다

고급 사무실 임대

창고 자리 전문 | 쇠당/ 리테일 자리 전문

투자용 상가 건물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REALTYONEGROUP
CAPITAL

비엔나 NEW 싱글



\$2,680,000

방 6, 화 5.5, 4218 SqFt.
아주 좋은 위치,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싱글



\$2,799,888

방 6, 화 6.5, 5133 SqFt.
비엔나 ES, 모던 럭셔리, 아주 좋은 위치

비엔나 NEW 싱글



\$2,249,900

방 7, 화 7.5, 4425 SqFt. 2026 가을 입주
메인레벨에 풀베쓰와 방이 있는 밝은 집,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싱글



\$2,499,900

방 7, 화 7.5, 5324 SqFt. 2026 가을 입주
수영장과 이웃도어를 위한 자리, 메디슨 학군

“신축 주택은 주거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기성 주택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마감재 이면의 사공 상태부터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새집’이라는 상징성보다 ‘건축물 본연의 완성도’에 집중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으로
봐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한제, 어디서든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www.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
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2026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톱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메디케어
세미나

MD 엘리콧시티

1/14 (수요일@5pm)
1/31 (토요일@10am)

미 세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

트럼프, 한국 관세 15→25% 인상…왜
국회, 대미투자법 안건 상정도 안해
밴스, 김 총리에 온플법 등 우려 전달
미 대사대리도, 국무부도 최근 경고
여당 이제서야 ‘법안 1분기 내 통과’

view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원복(원상복귀)’은 이유 없는 급발
진이 아니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에 이어 JD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징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라고 믿는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준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에 걸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한국 국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인상 발표 ※ 현지시간 기준

2025년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토대로 11월 14일 ‘조인트 10월 29일 |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 12월 4일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공식 게재

소급 적용 … 11월 1일 25%→15%로 인하 11월 14일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

15%→25%로 인상

2026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산 제품 관세를 1월 26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음

자료: 한·미 양국 종합

회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뒤 실제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뒤 2개월째 안건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조세 심의와 이해회 전 장관 후보자의 1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27일 정태호 재경위 간사)는 입장이지만, 그간 정부·여당에서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투자 자금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간이 공청회’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기 전에도 입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물론 팩트시트에는 법안 발의만 명시돼 있는데, 트럼프가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 아예 골대를 뚫기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게 된다. 다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을 저격한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만 염두에 둔 게 아닐 가능성성이 크다는 점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관세 재부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측 서한의 수신자인 배 부총리는 쿠팡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현장에는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도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나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직선

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도 거문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이다(24일 특파원 간담회). 다만 미 측이 이를 쉽사리 납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 측의 서한과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팩트시트 합의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모두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팩트시트를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후속 조치가 더뎠는데,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의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미국의 복합적 불신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사안을 분리해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발해 대미 투자 법안 처리를 미루자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실력 발휘에 나서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은 당초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액 6000억 달러(약 868조원)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다.

이달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트럼프가 코너에 몰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안효성·윤지원 기자, 강태화 기자

망사용료·고밀도 지도…관세 변수된 ‘미 빅테크 입김’

국내 업계는 허용될까 노심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인 관세 25% 복원 조치로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가 한·미 관세 협상의 변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

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보낸 서한에는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IT 업계에선 미국이 지목한 한

국의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과 ‘망 사용료 부과’ ‘국내 고정밀 지

도 반출’ 이슈 등을 꼽는다.

망 사용료의 경우 이번 서한에서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표현으로 직접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국내 콘텐트 사업 주류인 만큼,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망 사용 대가를 공평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에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IT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에서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지 않는 다’고 한 건 한국 입장에서 빅테크도 똑같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뮤비티 업계에선 이번 관세 인상으로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허용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때 안보상 우려로 불허했고, 지난해 구글의 신청 건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강광우 기자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밀수·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로 해석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뮤비티 업계에선 이번 관세 인상으로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허용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구글이 2016년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때 안보상 우려로 불허했고, 지난해 구글의 신청 건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강광우 기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주소	가격	면적	주요 특징	
				주거	상업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한 아파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일도 많이 펼쳐놓고 연락 중. 2/6 마켓에 올라온 예정	NEW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689,000	손님의 꼭 원하는 지역의 차고 1 탑승 흥.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세틀먼트 예정	NEW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625,000	셀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광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할. Seller So Happy. 11/24 세틀먼트 완료	SELL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1.32M	복수 오피 받아 경쟁 지역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틀먼트 완료	SOLD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775,000	집 사시미차 주제원 청기 렌트 완료 10/21 세틀먼트 완료	SOLD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상글홈	SALE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찾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주소	기간	세입자
을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제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임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비로 입주 가능	\$5,500 원 전체 언더그레이드 원 차고 1 탑승 흥, 방 3, 화 3+1, 카펫 없음, 롱펠로우 중/麦클린 고등
McLean, One Park Crest 콘도	비로 입주 가능	\$4,000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비로 입주 가능	\$2,700 방 2, 화 2, 지정 치고, Springfield ES, Longfellow MS, McLean HS
Centreville, VA	12/20 입주 가능	\$3,200 집 전체 Renovation 원 차고 1 탑승 흥, 폴린 파월 초등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12월 말 입주 가능	\$4,800 맥클린에서 유일하게 수영장 있는 집 1, 탑승 흥, 방 4, 화 3+1, 롱펠로우 중/麦클린 고등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1/1 일 입주 가능	\$3,300 집 전체 Renovation 원 차고 1 상글 흥, 교통편리, 방 4, 화 2, Nice Owner
Vienna 타이슨스 앤 Amherstwood 터운 하우스 단지 3채	현재는 12/20일 두세는 1/1 일 입주 가능	\$4,600-\$4,800 차고 2 탑승 흥, Greenbriar 및 Westgate 결여길 수 있는 거리, 집 상태 아주 좋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한스 스페셜 당일 투어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앵콜 5차 2026년 2/21(토) \$289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1차~4차 마감

대형버스



워싱턴 최초 벤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in NY THE MET

2/28(토) 당일투어 \$199

한국어 설명 도슨트 포함

고흐, 렘브란트 등
세계적 명작을 만나는 기회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3/7(토) 당일투어 \$199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 실내 꽃축제

대형버스

ROOTED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2/16(월)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2/26(목)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 출발 \$1,350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쉬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3박4일 5/22(금)~5/25(월)	
\$1,040 항공불포함	
옐로스톤 5/8부터 3박4일	
\$950 항공 불포함 매주 월, 금 출발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HANS TRAVEL



한스관광 hantravelusa Hans Travel



친구 추가!

비스가 필요할땐?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페루 일주

자연, 문화, 역사의
완벽한 조화

리마/쿠스코/마추피추/우루밤바/ 모라이/이까사막/나스카/빠라카스

8박9일 3/14(토)~3/22(일)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고국여행 특별기획!

맛있는 남해,
추억의 맛을 찾아서여유있게
알찬 일정!!

7박8일 4/11(토)~4/18(토)

\$2,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봄에 만나는 진짜 유럽!!

베네룩스 3국

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8박9일 4/9(목)~4/17(금)

\$3,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노옵션!



빠른 마감! 예약 서두르세요!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11박12일 5/2(토)~5/13(수)

\$3,7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1차 마감!

가장 클래식한 유럽 여행!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5/18(월)~5/26(화)

\$3,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한스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마감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마감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마감

02/06(금)~02/21(토) 두바이, 아부다비+남인도+스리랑카 마감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마감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마감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마감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재키 조

8박9일 \$3,590 재키 조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마감임박! \$5,995 재키 조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러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마감

05/02(토)~05/13(수)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재키 조

11박12일 \$3,790 애나 김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마감

05/18(월)~05/26(화)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3,290 세라 정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06/02(화)~06/14(일)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6/15(월)~0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10박11일 \$6,695 재키 조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벤쿠버 IN/OUT

5박6일 \$2,190 항공포함 세라 정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16,400

조앤 한

12박13일 \$12,900

조앤 한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조앤 한

7박8일 \$5,950

조앤 한

08/06(목)~08/12(수) 알래스카 앵커리지호텔 업그레이드

애나 김

6박7일 \$3,090

애나 김

08/15(토)~08/28(금) 그린란드 + 아이슬란드

재키 조

13박14일 \$12,990

재키 조

08/15(토)~08/22(토) 그린란드 7박8일 마감

재키 조

08/21(금)~08/28(금) 아이슬란드 7박8일 \$6,995

조앤 한

09/07(월)~09/16(수)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조앤 한

9박10일 \$3,890 애나 김

조앤 한

09/17(목)~09/25(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톨로미테

조앤 한

8박9일 \$3,590 세라 정

조앤 한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조앤 한

8박9일 \$6,590 재키 조

조앤 한

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조앤 한

13박14일 \$5,390 조앤 한

조앤 한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조앤 한

10박11일 \$3,690 애나 김

조앤 한

10/05(월)~10/17(토) 음악과 예술이 있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조앤 한

12박13일 \$6,595 스페셜 기획!! 재키 조

재키 조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조앤 한

11박12일 \$3,790 세라 정

조эн 한

10/12(월)~10/24(토) 그리스 & 터키 성지순례 1차 마감

재키 조

10/14(수)~10/24(토) 한국의 맛과 멋, 가을 여행

인솔자

제명 기로 한동훈 “김종혁 탈당 권유, 북한 수령론 같다”

“당원이 대표 비판땐 내쫓아야야 하나”
장동혁 오늘 복귀, 내일은 최고위
일각 “장 돌아오면 제명 굳어질 수도”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윤리 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이자 사이비 민주주의”

라며 “당원이 대표를 비판하면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반지성적인 말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이 아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전략도 평고 있다. 그는 이날 지자 소통 플랫폼 ‘한컷’에 다음달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공지했다. 31일 제명 철회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지지자를 향해서는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28

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다. 지난 14일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기자회견 이후 첫 공개 행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탈당 권유 처분은) 당내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도 “여권에선 덧셈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외하고 배제한다”(이성권 의원)고 공개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은 이날 ‘지

도부에 요청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당내에 존재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장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를 받은지 6일 만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제명은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7일 단식 중단 뒤 첫 메시지도 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지갑에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썼다.

양수민 기자

“애들 음주 부추겨” 해외선 없애는 ‘술 자판기’ … 한국 역주행

정부·주류업계 ‘제한적 허용’ 추진
전문가 “문턱 낮추면 술 더 쉽게 사”
한국 첫 음주 12.8세, 매일 13명 사망
일본도 최근 설치 제한 등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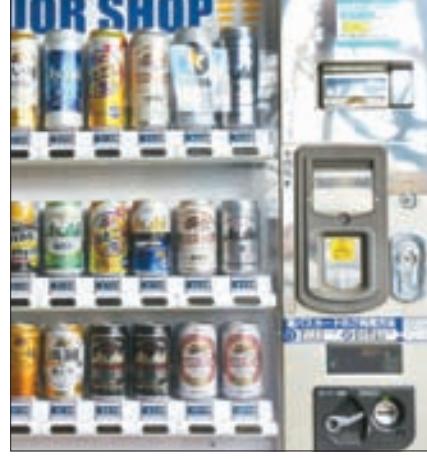
무인 점포 확산 흐름 속에 그간 금지돼 있던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허용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성인인증 강화,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음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자판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령상 일반 소매점(무인점포 포함)에서 주류를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9월까지 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

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류자판기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인증기술 고도화와 운영 시간제한 등 관리·감독 강화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예고했다. 주류업계는 최근 줄어드는 주류 소비가 늘어날 계기로 보고 반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주류 자판기를 도입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립암센터 최윤정 교수(가정의학과)는 “우리 나라에선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술을 쉽게 살 수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주류 접근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자판기로 문턱을 더 낮춰주면 어린이·청소년 음주를 부추길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일본의 맥주 자판기. 최근 후생노동성은 주류 자판기가 미성년자 음주 예방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셔터스톡]

음주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기 인제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는 “주류 자판기 도입으로 술 소비가 늘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와 음주 폐해로 쓰는 건강보험 재정을 비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인증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청소년 접근은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기 교수는 “과거 비슷한 인증 장치를 적용한 담배 자판기 역시 다 뚫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판기는 판매 수단인 동시에 상시 노출되는 광고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술 소비는 줄었다지만, 국내 음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4조 6000억원(2023년 건강보험연구원)에 달하며, 2024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823명으로, 매일 13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했다. 음주 시작 연령은 2024년 기준 12.8세까지 낮아졌고, 2030 여성의

음주율(50.1%)과 고위험 음주율(9.9%)도 증가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선언했다. 단 한 잔의 술도 암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다.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라고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주류 유통의 편의성 보다는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국가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추세다. 일본은 1950~60년대 주류자판기를 허용해 널리 보급됐다. 1996년 17만대를 넘어섰던 자판기는 2024년 9000여 대로 확 줄었다. 연령화 인 강화, 심야 판매 제한, 공공장소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면서다. 최근 후생노동성은 주류자판기가 미성년자 음주 예방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스더 기자

“청소기로 햄스터 빨아들여 …” 수사 중에도 학대 방송

막장영상 반복 게재한 네이버
‘경찰 수사 안 무섭다’ 조롱까지

햄스터 같은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된 게시물 작성자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학대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햄스터·기니피그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햄스터를 한

우리에 넣어 사육하고, 다쳐서 피가 나거나 쓰러진 동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또 합사한 동물이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면 땀발을 때려 기절시키거나 물이 닿아서는 안 되는 동물을 목욕시키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개시 이후에도 학대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일부터 햄스터를 손에 꽂 움켜쥐고 흔들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 등을 생방송으로 송출했다. 또 ‘학대를 중단하고 사육 중인 동물을 분양하라’고 항의한 온

라인 카페 이용자에게 “(동물을 살리려면) 14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학대를 말리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성적 비하가 담긴 내용의 욕설 메시지와 음란물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됐다. 그러나 A씨는 동물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경찰 수사는) 안 무섭다. 이미 범죄 몇 번 해봄. 경찰서 맞집 다 안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류효림 기자



고드름 제거 중입니다 … 오늘 최저 -16 27일 경기도 수원시 화서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기상청은 28일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6~-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자동차 사고후유증 손, 발 통증 및 저림
- 척추디스크통증 어깨 결림 및 통증
- 두통, 목, 허리 통증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기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25% 관세 땐 5조 증발… 현대차·기아, 트럼프 리스크에 당혹

(추가 영업비용)

관세 폭탄, 자동차 업계 반응은

“불확실성 걷힌 줄 알았는데 더 커져”
직격탄 맞은 한국GM “상황 파악중”
현대차·기아 주가는 큰 영향 없어

잠잠해진 줄 알았던 ‘관세 폭탄’이 재점화하자 자동차 등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한국GM 등 국내 차업계는 이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여파를 가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지금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 실적 영향을 점검하며 정부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걷혔다 생각했는데, 아닌 밤중에 흥두깨처럼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렸다”고 난감해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고위 경영진이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은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이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미국에 머물고 있다. 현대차 그룹 고위 관계자들은 화상회의 등으로 현지에서 연락망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신차 라인업 공개 행사를 준비한 한국GM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약 85%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GM은 한·미 자동차 관세 최대 피해업체로 꼽힌다. 헉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작년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악영향이 커졌던 만큼,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본사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현·남윤서·김경미 기자

증권가에선 관세 10%포인트 인상 시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조1000억 원과 2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21~2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 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제약·바이오업체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현지 공장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바이오 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무역확장법 232조)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아직까지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은 만큼,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를 서두르도록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본다. 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늦어지는 걸 미국 입장에선 ‘합의 이행 지연’으로 볼 수도 있어 일종의 유감 표명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실제로 관세 25%를 물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으로도 악재”라고 했다.

다만 이날 현대차·기아의 주가 영향은 크지 않았다. 현대차는 전장보다 0.51% 내린 49만원에, 기아는 1.1% 내린 15만3500원에 마감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관세가 오른다고 해도 주가 측면에선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은 이미 대통령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국회의 비준 절차도 결국 시간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대미 자동차 관세는 조만간 15%로 재확정될 것으로 보여 실적 전망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

고 했다.



27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이에 따른 여파를 가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30차례 말 바꿨다… 일각선 “이번에도 타코”

(TAO·트럼프는 언제나 꼼수니를 뺀다)

관세 불확실성 다시 불거져

업계 “투자 많을수록 손해 우려”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로 재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국내 10대 그룹 A입원은 중앙일보에 “한동안 대외 불확실성이 걷히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트럼프 변수’가 터졌다”며 “미국이 어떤 카드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투자 압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 관계자도 “관세 리스크가 길어지면 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등 선제적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입장장을 바꿔온 만큼, 이번에도 ‘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언제나 꼼수니를 뺀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해 4월 2일부터 지난해 7월 8일까지 무려 28차례나 관세 관련 입장장을 번복했다.

이후에도 말 바꾸기는 이어졌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상호관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

표했다. 올해부터 인상이 예고됐던 목재·가구 관세율도 1년간 유예됐다. 최근 그린란드 분쟁과 연계해 유럽 8개국에 가했던 10% 관세 위협도 지난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 류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철회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압박 발언은 합의나 제도보다 대통령 의지가 우선하는 트럼프식 통상정책의 본질”이라며 “미국은 이미 불확실한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영근·김수민 기자

김건희 오늘 첫 선고, 실형 땐 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유죄

주가조작 인지·샤넬백 대가성 쟁점
재판부 1심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도 선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8월 말 1차로 기소한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 예정이다.

김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4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2024년 10월 김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여사

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확보돼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다.

김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11월 미래에셋증권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인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먼저든지
전화 주세요.

집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방에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집 미쁘게 수리하여
팔아드립니다.

페를



페어팩스 터운홈
2005년생, 방4, 화3.5, 치고2,
집전체 마루, 교통과 액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850,000



챈틸리 터운홈
2005년생, 방3, 화2.5, 치고2,
3레벨 모두 범퍼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터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터운홈
\$700,000

페를



센터빌 터운홈
1995년생, 방3+, 화3.5,
1250sqft
\$530,000



센터빌 터운홈
방3, 화2.5, 치고2,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터운홈
\$70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감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앤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관세폭탄 떨어진 날도 네 탓…야 “비준패싱” 여 “국익볼모”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월 10일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수입율 25% 관세 부과 예고
3월 26일 트럼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7월 8일 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 부과 예정 적시

7월 30일 한국 협상단,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관세 협상 큰 틀에서 타결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등 인하 및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의 내용
8월 26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내용 송인. 후속 협의 미완으로 공동성명 미작성
10월 29일 이재명·트럼프, 경북 경주 APEC 서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정점 합의

11월 14일 한·미 양국 합의 내용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설명자료) 최종 확정
12월 4일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15%로 소급 인하(11월 1일자 소급 적용)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협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 예고(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 언급)

지난해 8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배석한 한국 측 참모들. 앞줄 오른쪽부터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뒷줄 오른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 백악관]

트럼프 ‘한국 입법부 탓’ 쪽 집자
여당, 두달 동안 손놓다 이제야 처리
우원식, 여야에 “법안 심사 집중을”
국힘 “핫라인 있다더니 뒤통수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3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한국 입법부의 입법 불이행”
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1분기 안에 통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며 “지금 이 바로 행동할 끝스타임”(11월 6일)이라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법안 숙려기간(20일)이 지난 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충돌하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잊혀지다시피 했다. 그래서 법안은 아직 재경위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한영익·여성국 기자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2022년 20대 대선 전후 정치 브로커 명태군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양선수재)도 받고 있다. 명씨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

령도 공범으로 별도 기소됐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를 제외한 두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

려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 역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 키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김정관·러트니 라인’과 ‘여한구·그리어 라인’을 재가동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티타임과 국무회의에서 관세 문제에 말을 아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주요 공약·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안효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서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으로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정당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양선수재) 등 2건의 재판

이 남아 있다. 형사27부와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각각 심리 중이다.

아울러 형사27부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보름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돋웁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Emergency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응급환자 · 치아성형 · Invisalign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7초면 될까요

세계를 추월하려면



2026 동계올림픽 D-9

쇼트트랙 국가대표 막내 임종언
111m 한바퀴 7초8, 별명이 '페라임'
"중2 때 다리 부상, 6개월간 못걸어
멋진 경기? 완벽한 경기 펼칠래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무서운 막내' 임종언(19)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지난해 고교 3학년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전체 1위를 거머쥐며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시니어 데뷔 무대인 올 시즌 월드투어 1~4차 대회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다. 주종목인 1500m를 포함해 1000m와 계주까지 4종목을 제패하며 이미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올랐다. 빙상계에서는 "첫 올림픽이지만 개인전 금메달 1개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거친 얼음판 같았다. 몸 곳곳에는 훈장 같은 3번의 큰 부상 흔적이 남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신의 스케이트 날에 허벅지가 찢기는 사고를 당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이듬해 복승아빠까지 골절되는 사연이 이어졌다. 뼈를 고정했던 핀은 모두 제거했지만, 지독한 염증이 그를 괴롭혔다. 임종언은 "보조장치 없이는 걷지도 못했던 6개월을 견뎌내고 1년 만에야 다시 스케이트를 신었다"고 회상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딛고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질주는 경이롭다. 트랙 한 바퀴(111.12m) 랩타임은 무려 7초8. 힘을 들이지 않는 듯 부드러운데 속도는 압도적이다. 비결은 '지면 밀착'에 있다. 자동차 바퀴가 공중에 뜨면 헛돌듯, 스케이트도 날을 빙

판에 바짝 붙여야 추진력이 생긴다. 임종언은 깊은 코너링 자세로 빙판을 끌까지 밀어내며 한 번의 킥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낸다. 양발이 빙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가는 힘은 배가된다. 마치 스포츠카가 정교하게 기어를 변속하며 치고 나가듯, 그의 추월 기술은 예술에 가깝다.

영화 'F1 더 무비'를 보고 레이싱의 세계에 빠진 그는 페라리 팀의 드라이버 샤를 르클레르의 광팬이다. 르클레르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고 대선배 최민정(28)에게 "누나, 저랑 좀 닮았죠?"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팬들이 붙여준 별명도 성과 페라리를 합친 '페라임'이다.

올 시즌 최대 라이벌은 7개의 금메달을 따낸 윌리엄 단지누(캐나다)다. 1m91cm의 거구인 단지누에 비해 임종언(1m75cm)은 체격이 작지만, 지지지



2

- 남자 쇼트트랙팀 막내 임종언은 동계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다.
-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임종언.

[연합뉴스, 사진 700크리에이터스]



박린 기자



'두바이' 만 붙으면 이런다

한국 휙쓰는 '두바이 디저트' 열풍

10대 아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50명 넘는 사람들이 수십 분간 줄을 섰다. "1인당 2개씩 한정 구매 가능합니다" 직원의 수량 제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받아든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리비게뜨 광화문1945점에서 디저트 '두바이 쫀득 볼(두쫀볼)'을 구매하는 풍경이다.

'두바이 디저트' 열풍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초 2030세대의 인기 디저트로 통했던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키)'는 여러 파생 상품을 넣으며 전 연령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통 개당 5000원~1만원대로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조기 품절과 오픈런이 이어진다.

제품 경쟁력과 소셜미디어(SNS)의 일상화, 경기 불황 속에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란 분석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탕후루 등 이전 유행 디저트에 비해 맛과 식감 면에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두바이'란 이름이 주는 이국적인 이미지도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대를 초월한 인기는 판매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충남 천안시에서 왔다는 김동연(78)씨는 또래 친구와 함께 줄을 서 두쫀볼을 손에 넣었다. 그는 "내가 먹으려고 샀다"며 "손자가 '요즘 대세'라고 추천해길래 서울에 놀라온 김에 들렸다"고 말했다.

두쫀쿠키는 한동안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디저트다. 버터에 블은 카다이프(중동식 면)와 퍼스타치오 크림을 둥글게 빚은 뒤 마시멜로로 감싸 초콜릿 가루를 입혔다. 이름은 쿠키지만 식감은 '겉쫀속바(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띄에 가깝다.

주요 기업들이 '두바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엔 디저트의 흥행력이 있다. 편의점 CU의 '두바이 쫀득 찹쌀떡'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80만개를 기록했고, 투썸플레이스의 두바이 케이크는 지난 26일 사전예약 오픈 5분 만에 완판됐다. 카페 설빙의 '두바이 초코설빙'은 겨울철인데도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

임선영 기자

멕시코 대통령 "BTS 공연 더" 호소

북미·유럽 41회 공연 전석 매진
"멕시코에선 100만명 티켓 원해"



오는 4월 9일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나서는 BTS 멤버들. [사진 디즈니플러스]

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또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BTS는 오는 4월 25·26·28일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엘파소·멕시코시티·스탠퍼드·拉斯베이거스 등 12개 도시에서 31회에 걸쳐 북미 공연을 연다. 이 가운데 탬파·스탠퍼드·拉斯베이거스에서는 현지의 뜨거운 호응 덕에 각 1회차씩 추가 공연이 확정됐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추가 공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경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의 멕시코 콘서트 추가 배정 타진



최민자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5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 NVAR Top Producer
- ▶ Zillow Premier Agent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FAIRFAX REALTY 50/66 LLC

버크 타운홈



\$565,000

방3 / 화3.5 / 퍼킹2
부엌, Bath 등 전체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데크 & 페토이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200,000

방1 / 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½,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Contract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½,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Contract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½,
Bay Window 2개, 편리한 탁트인 구조,
밝고 흰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Sold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½,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헤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루기

‘마춤옷’은 없어요

얼마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 중학교에 가게 돼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나 고물으니,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된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이는 지금 교복을 맞추러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아이와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치수를 재서 몸에 딱 맞게 만든 옷을 일컬어 ‘마춤옷’이라고 해야 할까, ‘맞춤옷’이라고 해야 할까.

정답은 ‘맞춤옷’. ‘마춤’은 ‘마주다’에 ‘ㅁ’을 붙여 명사형으로 활용한 표현이다. ‘마주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맞추다’의 잘못으로 올라 있다.

다시 말해 ‘마주다’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땐 ‘맞추다’를 써야 맞는다. 따라서 ‘맞추다’를 활용한 ‘맞춤옷’이 바른 표현이다.

‘마주다’가 아닌 ‘맞추다’로 적는 이유는 용언의 어간에 접사 ‘-추-’가 붙어서 이후 어진 말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2항의 규정 때문이다. 또 한글 맞춤법 제55항에도 ‘맞추다’와 ‘마주다’로 구별해 적던 것을 ‘맞추다’ 한 가지로 적는다 고 규정돼 있다.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잘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안성맞춤’도 마찬가지다.

굳이 과거를 빗대어 달라진 현재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주변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사람과 규칙도 일부 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독자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기억을 조금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30년 전 미국에 오자마자 느꼈던 생각은 바로 ‘책에서만 배우지 않고 와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였다. 미국은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포용력’이 뛰어났고, ‘여유와 긍휼함’이 있었다.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이었다.

이런 새로운 환경은 딱딱한 봉건적 잔재가 남은 사회에서 체면을 중시하던 한국 출신인 필자를 서서히 무장 해제시켰다. 존댓말을 쓰거나 가식적이지 않고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음은 물론이다.

시민들은 피부색과 언어를 떠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했으며, 곤경에 처한 타인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곤 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강대국인 미국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미국은 모두가 알고 싶고,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나라였다. 그래서 이민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공간으로 여겨져 수많은 이민자가 큰 가방을 들고 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호를 열어 놨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것들

중앙칼럼

미국적 가치는 어디로 갔나



최인성
경제부 부국장

도충분히 이해한다.

불체이민자들의 각종 범죄가 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 과정에서 소위 ‘바구니 안에 썩은 사과를 골라내기 위해’ 과도한 힘을 쓴 나머지 바구니 전체가 흔들리고 튼실한 사과들도 상처를 입거나 그럴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미국인의 삶에 위협이 될 정도로 무리하게 해야만 하는 일인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 무리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인도적, 도덕적, 인명 중시의 헌법적 가치가 무너졌다. 아이와 노약자, 여성은 보호받지 못했으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직무 교육을 받지 못해 마치 성난 벼룩으로 처럼 날뛰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사람들은 여러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나름 주어진 국적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납부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불만이 있다고 태어난 조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미국인도 있다. 나와 가족의 삶이 안전하고 풍요로워진다면 누구에게나 선택권이 있다.

미국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안전한 삶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 의무를 다해왔기 때문이다. 아내가 아침에 문득 말했다.

“미네소타를 보면 세상이 혐악해진 것을 실감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빠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뿐만은 아닐 거야.”

공무원의 이름과 명분으로 더는 무고한 시민을 죽이지 말라. 법 집행기관들은 이제라도 시민 대응 수칙을 다시 살펴보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과 커뮤니티를 중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지 않았나. 200년 넘게 공들여 만든 법규와 집행 방식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아니면 이런 가치를 이제 모두 포기한다고 선언할 것인지 위정자들은 답해야 할 것이다.

그저 선거가 오면 표를 바라며 상투적인 구호를 낭발하지 말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나서라.

파괴와 살상이 아니라 자애와 희망이라는 미국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기대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암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해가 바뀔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결심도 한다. 이럴 때 빼지지 않고 했던 결심이 올해는 꼭 영어 공부를 완성해야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유가 왜일까? AI(인공지능) 기반 언어 지원 앱의 급속한 발전이 영어를 직접 배우려는 동기를 약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니어들은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들어서면 잊어버리니, 나는 안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자고감만 들게 하니 괜히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나만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망각 현상을 실험으로 연구했다. 그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반복 학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두뇌의 기억 순서 정도를 관찰하고, 그래프를 그려 ‘망각곡선’이라고 불렀다.

망각은 학습 직후인 20분 이내에 41.8%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약 56%를 잊고, 1일 후에는 70% 이상, 1개월 후에는 약 80%를 망각했다. 즉 인간의 두뇌는 반복 학습이 없으면 대부분

열린광장

영어, 의지가 중요하다



최성규
베스트 영어훈련원장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는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분산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조금 위로가 된다.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이 결심해서 해야 한다.

올해 재외 동포청이 ‘이달의 재외 동포’로 미국인들에게 ‘태권도의 대부’로 알려진 이준구 전사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치인, 경찰 등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소룡과 알리도 지도했다. 미 전국에 60여개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

하며 일생을 보냈다.

오래전 그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사회자가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영어는 어떻게 배워서 했습니까?라고 묻자 “영어요, 그거 쉽습니다. 3개월이면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3개월 교습법은 실제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각국에 보낼 통역병을 양성하면서 사용한 ‘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이라고 불렀던 집중 통역 교습법이다. 3~4개월 내외에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해서 필요한 말을 머리에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미군의 한국 주둔 초기 자신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돋던 카투사라 불리는 한국군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시는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했어도 말은 못하던 시대였다. A4 용지 4장 정도에 꼭 필요한 문장을 적어 일주일 정도 이것만 외우기 한 뒤 근무를 시작하게 했다. 이 방법은 머리가 특별히 좋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는 꼭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

1. 센터빌 타운	\$650,000
	방3, 화2.5, 치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 <i>Under Contract</i>
2. 애쉬번 타운	SOLD \$660,000
	방 4, 화 3.5, 치고2, 최고 학군, RT 267/7, 일리스 평화,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i>Under Contract</i>
4. 스텔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이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이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 2 2. 매너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 \$750,000 방4, 화3.5 치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뒷술,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트맥 풀/RT 95, RT1, RT234, 디시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애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워크,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더룸, 개인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루, 끝칸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i>Under Contract</i>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리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면리한 위치, 애년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년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트럼프 립 서비스만 믿다간 해양플랜트 악몽 반복될 수도”

우려가 현실이 되나.

한국시각으로 어제(27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소셜(SNS)에 “한국산 자동차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 하겠다”고 올린 소식을 듣자마자 맨 처음 든 생각이다. 지난해 7월 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15%로 타결되자 구윤철 부총리 등 통상협상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이 제안한 1500억 달러(217조원)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트럼프를 움직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관세 협상의 게임 체인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릴 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냈다. 쉽게 말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업 경쟁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투였다. 그리고 한 달 뒤 위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핵심 의제로 꺼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와 배를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미 조선 동맹 기대감으로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 주가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그런데 정작 조선 3사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이런 희망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왔다. “매 아리 없는 구호”(이신형 서울 대 교수)라거나 “미국 조선업 보호법인 존스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서울 대 조선해양공학과 출신으로 16년 동안 한국과 유럽·중국에서 직접 배(군함 엔진 생산 설계)와 조선소(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삼진조선)를 밑바닥부터 만든 경험이 있는 권효재(49) COR 지식그룹 대표이자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원도 그중 하나다. 최근 낸 『K-조선 대전환』을 통해 조선업의 태동부터 마스가 프로젝트까지에 대한 그는 “(한국 조선업 필요·협업 발언은) 립 서비스”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걸까. 트럼프의 관세 인상 기습통보 이틀 전인 지난 25일 일요일 오후 그를 만나 장밋빛 전망에 가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한국 조선의 뛰어난 경쟁력

-마스가 프로젝트, 뭘 걱정하나.

“한국 조선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던 2012년 해양 플랜트 고통이 아직 너무 생생하다. 내 경험부터 얘기해야겠다. 중국 조선소(한국 자본 삼진조선)에서 일하다 2012년 봄 첫 직장인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이 다시 불러줘서 이후엔 조선 아닌 에너지(주로 LNG) 개발 업무를 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오일 메이저)가 대체 왜 우리한테 배를 발주하는지 늘 궁금했다. 막상 미국·유럽을 오가며 그 에너지 회사들이랑 조인트 벤처로 같이 사업 개발을 해보니 막연히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한국 조선은 뛰어난 품질, 낮은 원가, 신속한 납기가 경쟁력이다. 그건 맞다. 하지만 품질·원가·납기가 우수하기만 하면 주문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끝없이 세뇌 받았는데, 그건 착각이더라. 절대 그렇지 않다. 때론 원가가 비싸도 선택하고, 심지어 (품질이) 후져도 산다. 그들 시각에서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큰 판을 본다. 지정학적인 이슈나 자본시장의 요구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 메커니즘을 진작 이해했으면 한국 조선이 2012년 해양 플랜트에 올인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는 일은 없었을 거다.”

-세일가스 후폭풍 얘기인가.

“그렇다. 당시 유가가 비쌌다. 에너지 회사들은 (값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바다에서 기름을 캐고 싶어 할 게 분명하니 해양 플랜트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 생각해 국내 조선사들은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와 반대로 움직였다. 돌이켜보면 우린 미국에서의 세일가스 생산 급증이 전체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못 했다. 일본은 그런 큰 판을 읽는 정보가 있었다.”

미 하원서 날린 관련 법안

-마스가 프로젝트가 해양 플랜트의 반복이 될 거란 건가.

“모르고 당하지 말고 그 전에 해법을 찾자는 거다. 트럼프가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 조선과 협업하겠다고 하는 건 립 서비스다. 트럼프 접근법은 전형적인 부동산 디벨로퍼 화법이다.

일단 좋은 그림 던져놓고 중요한 얘기는 뒤에 한다. 첫 발언 믿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 맥락에서



지난 25일 『K-조선 대전환』을 쓴 조선·에너지 전문가인 권효재 COR 지식그룹 대표를 만났다. 그는 한국 조선의 경쟁력을 한참 얘기하면서도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한계도 짚었다. 우상조 기자

업황 좋을 때 똑같은 방법을 쓰다 나빠지면 똑같이 손해 본다. 이번에도 와르르 몰려가다 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당하진 말자는 거다. 해양 플랜트 때 이미 그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자성하지도 않았다. 조직(정부·기업)이 (실패를) 학습하고, 필요한 긴장을 유지해야하는데 그냥 경영진 교체로 끝났다.”

-마스가 관련, 우리 정부나 국내 조선 3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부나 조선 3사 모두 (한국 조선을 세계 1등에 올려놓은) LNG선의 넥스트가 뭐냐는 고민을 한다. 마스가를 통한 미 군함이나 항후 5년간 200척이 필요하다는 전략 상선대(전쟁 등 비상 시 징발 대가로 발주 때 보조금 주는 상선) 수주 역시 그중 하나다. 당연히 도전할 만하다. 다만, 일본이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던 1980~90년대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첨단 LNG선 국산화를 결정하고 민간 기업끼리 경쟁을 유도해 우리가 일본 조선 굴레를 넘어 세계 1등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의사 결정은 엘리트 관료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공이 컸다. 잊은 순환 보직에다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지금의 관료 조직에서는 쉽지 않다. 축적도 없으니까. 이제라도 경험과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전문 자문관 같은 자리를 뒤 활용하면 좋겠다. 국내 업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거듭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한국 LNG선 개발 역사는 전 세계 조선 역사를 놓고 봐도 굉장히 드문 성공 사례다. 지금은 조선 3사 머리가 너무 커져서 정부의 큰 그림 아래 호흡을 맞춰가며 같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각 사가 공유할 건 공유해 산업 전체 차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조선은 반도체처럼 끊임없이 핵심 기술을 개발해 매출로 이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최첨단 설계 도면도 누구나 구할 수 있다. 실제 만들어내는 현장의 숙련된 기능공과 현장 엔지니어 사이의 암묵지가 핵심 노하우다. 우리 조선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이를 미국에 그대로 복사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각각 더 업격한 디지털 트윈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미국 기능공을 국내에서 훈련하거나, 아니면 미 해군이 하듯 시간 질질 끌면서 늘어나는 예산을 받아먹는 전략을 쓴다. 뭘 선택하든 이참에 조직문화를 정비하고 큰 그림에서 움직여야 한다.”

안혜리 논설위원

마스가 프로젝트가 해양 플랜트의 반복이 될 거란 건가.

“반도체 중요성 때문에 중국에 맞서 대만을 지키려면 미국은 누구 도움을 받든 무조건 해군력을 키워야 하지 않나.

“1년이냐, 10년이냐가 다르다. 배 수

주에서 인도까지 10년 이상 걸리니까

마스가는 최소 10년짜리 의사결정 차

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미국이 정말 중

국과 힘 대결을 할까. 난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영향력을 인정할 거라 본

다. 미국은 중국이 있든 없든 반도체처

럼 중요한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

는 걸 싫어한다. 대만 의존도 낮추기는

미국과 중국 둘 다 이해관계가 똑같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국은 중국과 태

협해서 줄 건 줘가며 대만 힘 빼고 두

나라 모두 자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 세

우려고 할 거다. 정리하자면, 미 해군이

대만 지키겠다고 한국에까지 손 벌려

군함 발주하고 우리한테 돈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모노 컬처 바꿔야 경쟁력 생겨

-책에선 어려워도 마스가에 도전해야 한다더니.

“온 국민이 ‘조선은 대한민국 혀자다’, ‘잘될 거다’라고 하니 나도 응원하고 싶다. 다만 한국 정부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과 더불어, 회사별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조선과)가 장악하다시피 한

조선 3사의 모노 컬처(획일적 문화)를

이젠 좀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

정적 주장을 하는 거다. 지나친 모노 컬

쳐라 경쟁 방법이나 판단까지 똑같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테이션,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심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이페스티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일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시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11월 양국 정상 간에 재확인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양국 정부의 공식 채널에서 오랫동안 협상해 합의 내용을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SNS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인상 시점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 중사는 자동차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한때 급락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우법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인 만큼, 한국을 압박해 대미투자의 가치적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싸고 국내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법안이 대미 투자의 근거법이고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올해 시작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 자체는 예정된 사실이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동맹국인 한국 의회의 적법한 국내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다. 트럼프의 관세 번복이 압박용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관세 번복이 한·미 간 소통의 균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응의 안일함을 보여준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회동한 김민석 총리는 ‘미국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내세웠다. 김 총리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협상 이행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갖는 불만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미국은 2주 전 이미 우리 측에 관세협상 합의 중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보낸 이 서한이 비록 대미투자특별법 얘기는 아니었다 해도 한

**트럼프, 자동차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방침 밝혀
쿠팡 사태, 디지털 규제 등 갈등 사안 빈틈없이 관리해야**

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 표명한 것은 분명한 이상 우리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 대처해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 “일회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번복 소동에서 보듯 한·미 간에 불신과 오해가 쌓여 파행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세뿐 아니라 쿠팡 사태와 디지털 규제 등에서 양국 간의 파열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의 최우선의 원칙 아래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등을 비난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서 쓴 결정문이 충격을 주고 있다. 결정문에서 “당 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는 취지로 내부 비판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사실상 성역으로 규정한 윤리위의 결정은 궤변을 넘어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당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반발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논리대로라면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은 불가능해진다.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종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판단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결정문에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 자연인 자격으로 비평을 하라”는 내용도 나온다.

계파 갈등의 최전선에서 있던 김 전 최고위원이 각 종 매체에서 과격한 발언을 해 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당 당원을 향해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판 것’ ‘파시스트적’ 등의 표현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이 정한 품위 유지 조항에 저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입틀막’이다.

정당의 기본 작동 원리는 경쟁이다. 공천과 경선 등 대부분의 과정에서 자신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주장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 그렇게 뽑은 대표를 ‘국민 자유 의지의 종합’이라는 이유로 비판할 수 없게 되는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대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놓고 친이재명계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논리대로면 우리 당 최고 위원들은 징계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단식을 끝내고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하는 정 대표에게 윤리위의 상식 이하의 결정문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윤리위 결정을 하루 빨리 거둬들이길 바란다.

국민의힘, 만년야당으로 극화하나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名 角



워래 권리 주변에선 현실이 뒤틀린다. 블랙홀의 거대한 중력이 시공간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못 봤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안다’ 등등, 그러려니 해야 한다.

물론 경악할 때가 있긴 하다.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말의 경우다. 김건희 특검과의 대안 증원에 따른 파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을 만나 세간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그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확신에 찬 채 반박했다.

“지난 한 달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10%포인트 올랐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르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게 없는 피해자다. 설명은 해도 사과는 못 한다.” “국정 동력을 달라는 선거다. 대통령은 계속 (선거전 때 전면에) 나을 것이다.”

다른 우주에 사나 했다. 그 만남 전후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선 33%에서 29%, 전국지표조사(NBS)는 32%에서 31%가 됐다. 아무리 좋게 봐도 횡보였다. 이후 좀 오르긴 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출국, 윤전 대통령의 4월 1일 대국민 담화로 다 깨먹었다.

반년 정도 지나 다른 참모로부터 “이라다 100석도 안 될 수 있으니 조치를 하자고 설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저도 상관없다’고 했다”라 말을 들었다. 당시엔 ‘저도 상관없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곤조’라고 여겼다. 이젠 아닐 수도 있겠다 싶다. 간언을 뿐이지 기 위해 내뱉었을 뿐, 속으로 “선거에서 이긴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필터 버블(정보 여과)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극화(極化)는 다양한 목소리가 경합하는 게(team of rivals) 아닌, 동질한 목소리만 있는 팀(team of unrivals)에서 발생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현실을 주입하려던 참모들은 밀려나거나 떠났다. 그 침담한 종착지를 우리는 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종착지 전까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어찌면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캐스 R 선스타인이 정리한 바 있듯(『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를 안에선 이런 동역학이 작용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내부 유대감은 극단주의를 키운다. 온건론자들이 밀려나고 열렬한 신봉자들만 남는 ‘자발적 분류(voluntary sorting)’과 ‘자기선택(self-selection)’이 이뤄지고 집단 내에선 애정과 연대감으로 뭉친 사람들끼리 토의 하니 더 극단적으로 흐른다.

선스타인은 “구성원들끼리 ‘반향실(echo chamber)’ 역할을 해서 자기들이 가진 우려나 신념을 키워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시킨다”며 “(집단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집단 내 반대 목소리의 수가 줄어들어 더 심한 과격주의가 등장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내외부의 비판은 외려 생각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내곤 한다.

윤어계인과 영입하고 반대파 축출
동류들끼리 뭉친들 더 극단화할 뿐
집권 포기하나… 결국 나라엔 불행

당시 용산에서뿐 아니라 지금 국민의 힘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당 주요직을 ‘윤어계인’으로 채우는 걸로 모자라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종합’”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비난하면 안 된다”(이준석·김기현을 내쫓은 건 친윤아닌가)거나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한다”(공신력 있는 조사 아닌가)는 논리로 반대파들을 내쫓고 있다. 누군가의 말대로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다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겠디”는 태세다. 이로 인해 멀쩡한 이들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당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탈당하려 한다”며 입을 다물었다.

국민의힘이 달라질까.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극화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이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극화된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면 만년 야당이니, 여당엔 행운이나 나라엔 불행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fe.joongang.co.kr>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운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분자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작자작(C) 중앙일보·무한 전자 및 제작포자

본사전체계약체육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화사통신社,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기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현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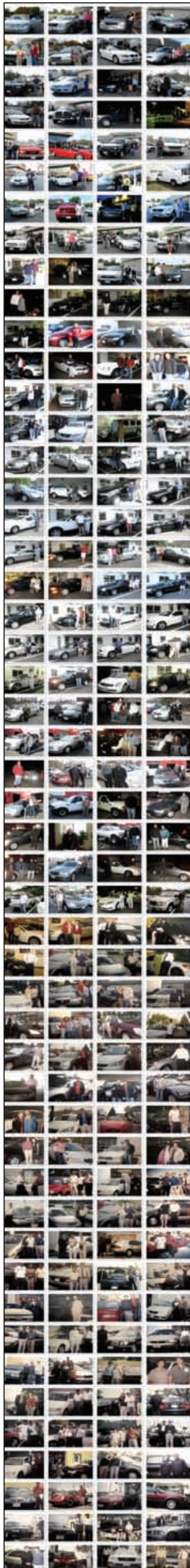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Old Lee Hwy.
T.J. Maxx
Main St. Center
Fairfax Motors
한국자동차
Woodson H.S.
Main St.
Pikehoff Rd.
Burke Station Rd.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anuary 28 2026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95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매출한 청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당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주 3회 1시간씩 걷고 가벼운 등산 한 번... 한 주 운동량 OK

운동과 심장 건강의 관계

규칙적 신체활동, 심폐능력 향상
심혈관·혈압·염증 문제 감소 효과
유산소, 주 3회 만보걷기로 충분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과 병행을

고등학교 시절 자마관계인 이웃나라 일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와서 1시간 정도 만남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우리와 달리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왔을 때 놀랐고, 모든 학생이 스포츠 동아리를 하고 있고 교내 활동을 넘어 주변 학교 혹은 지역, 전국 대회에까지 참가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얼마 전 아들이 인근 고등학교와 시합을 한다고 해서 몰래 아내와 구경을 갔는데, 모래 바닥이 아닌 잔디가 깔린 축구 전용 구장에서 축구화를 신고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스포츠의 저변이 매우 확대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보면 주변에서 일보다 스포츠 활동에 더 진심인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마라톤·사이클링 땐 심박세동 증가 주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심혈관을 건강하게 한다는 여러 연구의 보고가 있다. 심폐지구력이 높으면 모든 원인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이 낮아진다. 대략 한 시간 동안 1km를 더 달릴 수 있으면 운동능력 단위·Metabolic equivalents, METs) 1METs 상승에 해당), 13%의 사망률 감소, 15%의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한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만들어낸 근육·간·혈관·심장에 생리적 변화가 심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심폐기능의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지질이상증, 비만 등 전통적인 심혈

관 질환 위험 요인을 개선한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의 유산소 운동은 전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신체활동 증가된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가 늘고 피의 흐름이 증가되어 근육으로 더 많은 포도당이 전달되고 흡수된다. 말초 혈관에서는 저항이 감소되어 혈압이 감소된다. 긴장 시 증가되는 교감신경 활동을 줄이고 이는 혈관이 유연성이 증가되고 염증 감소 효과가 있다. 근육이 글리코겐 대신 지방 성분을 활용하면서 지질 수치를 낮춘다고 한다. 전체적인 대사량의 증가는 지방 분해를 유도하여 체중 특히 지방을 줄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에 따르면 성인 (18~64세)은 중강도(3~6 METs, 최대 심박수의 64~76%) 유산소 운동을 최소 150~300분, 고강도(6~9 METs, 최대 심박수의 77~93%) 유산소 운동을 최소 75~150분,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적절히 조합한 운동을 할 것을 권장 한다. 여기에 추가로 주 2회 이상의 중등도 강도 이상의 근육강화 운동도 또한 권고한다.

일주일에 2~3번 한 시간 동안 부지런히 걷고, 1번 정도 한 시간 가벼운 등산을 하면 충분히 만족하는 운동량이다. 만보 걷기를 했다면 보통 성인 보폭 고려하면 약 8km 정도이고 2시간 정도 걷는 시간이다. 만보 걷기를 주 3회 했다면 한 주에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다한 것이다. 적당한 운동 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목 심박계(스마트 워치) 혹은 가슴 심박계(가슴에 착용하는 밴드 형태의 심박수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심박수 변화를 측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활동별로 강도를 분류하면 덜 경쟁적인 골프·볼링 등이 저강도 운



동이고, 복식 테니스 정도를 중강도로 분류한다. 매우 경쟁적인 축구·농구·단식 테니스, 조정 등은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한다. 대략 자신이 즐기는 스포츠 활동으로 운동량을 가늠하면 된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 마치 병이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지나친 신체활동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통해 질환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강도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마라톤·사이클링 등) 중에 증가된 혈류량이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상과 회복 과정 중에 염증이 증가되고 혈관에 석회화가 촉진될 수 있다. 비슷한 작용이 심장내 심방에 발생하면, 심방이 확장되고 수축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심방세동의 발생이 증가될 수 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하고 심방세동의 발병률이 높다. 이 역설은 반론도 있다.

성인의 절반 가량만 적정 운동량 유지

정리하자면 반복적으로 지나친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에 운동을 중단하면 안 되고 권고되는 범위에서 적절한 강도와 시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의 이로운 효과에도 성인의 절반 정도만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가 보면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꼭 시간이 없다가 보다는 쉴 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 되곤 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과 신체 활동 추적 기(스마트워치 등)는 이러한 습관을 파악해서 신체 활동을 늘리라는 알림을 울려주고 운동을 다하면 보상을 준다. 잔소리가 늘 유쾌하진 않지만 어느 새 작은 보상을 바라며 운동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다. 따뜻한 봄, 개나리 꽃 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몸을 건강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중매 결혼식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예아,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 Ace Acupuncture
571-438-4644
-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 양성자 치료 기준 세울 것

인터뷰 박희철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장

삼성서울병원 박희철 양성자치료센터장은 “국내 입자선 치료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향후 양성자 치료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방사선 치료는 대표적인 암 치료법 중 하나다. 활로 과녁을 맞히듯 종양(암)에 방사선 빔을 집중해 쏘는 과정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겨냥하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가른다.

암세포는 확실히 제거하되,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차세대 방사선 치료 기술이 ‘입자선 치료’다. 활용하는 입자에 따라 양성자(수소)와 중입자(탄소)로 구분한다. 국내에선 2007년 국립 암센터에서 첫 입자선(양성자) 치료가 이뤄졌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말 민간병원 중 처음으로 양성자 치료를 시작했다. 양성자치료센터 개소 후 10년간 8000여 명의 암 환자가 이곳에서 양성자 치료를 받았다. 누적 치료 건수는 약 10만 건. 매년 1000명 안팎의 환자가 정밀한 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를 찾는다. 국내 입자선 치료 발전을 이끈 삼성서울병원 박희철 양성자치료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에게 지난 10년의 의미와 다음 10년의 방향을 물었다.

-센터 10주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제야 비로소 다음 10년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갖춰졌다고 본다. 성과만 보면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초반에는 장비 고장과 운영 불확실성 등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런데도 변화를 이끈 점은 확실하다. 삼성서울병원이 양성자 치료를 시작하면서 국내 입자선 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됐다. 현재 센터는 치료실을 2부제로 운영하며 하루 50건 가까운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수요는 많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주로 어떤 암종을 치료했나.

“간암이 3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두경부암·폐암·뇌종양·췌담도암이 뒤를 잇는다. 수술이 어렵거나 방사선 치료 난도가 높은 암종을 치료해 왔다. 정밀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에서 양성자 치료의 장점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양성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기존 방사선 치료는 피부에서 암까지 지나가는 모든 조직에 에너지를 남긴다. 반면에 양성자 치료는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한 에너지가 정상 조직을 거의 그대로 통과하다가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집중된 후 소멸한다. 이런 현상을 ‘브래그 피크(Bragg Peak)’라고 한다. 이 물리적 특성 덕분에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파괴하면서도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밀도가 중요한 간암·폐암·두경부암·소아암 치료에서 양성자 치료가 강점을 갖는 이유다.”

국내 민간병원 첫 양성자 치료 10년간 암 환자 8000여 명 찾아
차세대 기술 ‘플래시’ 연구 박차

-삼성서울병원의 핵심 기술은.

“라인스캐닝”이 대표적이다. 기준 2차원 양성자 치료는 종양 전체를 한번에 ‘도장 찍듯’ 조사(照射)하는 방식이었다. 라인스캐닝은 가느다란 팬넬 빔으로 종양 윤곽을 따라 선을 그리듯 채워 나간다. 종양 모양에 맞춰 조사할 수 있어 정밀도가 훨씬 높고, 정상 조직 보호에도 유리하다.”

-움직이는 장기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

“스캐닝 방식은 정밀한 대신 호흡에 민감하다. 숨을 쉴 때마다 장기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방사선종양학과가 20여 년간 축적한 호흡동조 기술을 결합해 해결했다.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 빔을 조사하거나 위치 변화를 계산해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식이다. 현재 센터에서 시행되는 양성자 치료의 99%는 이 스캐닝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성서울병원은 양성자 치료의 임상 균형을 차근차근 쌓아 왔다. 지난 10년간 91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에서 스캐닝 양성자 치료를 통해 국소 종양 제어 효과를 최초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 연구는 2022년 유럽방사선종양학회지(Radiotherapy and Oncology)에 게재됐다.

-또 다른 차세대 기술로 ‘플래시(FLASH)’가 주목받고 있다.

“플래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개념이다. 초당 40그레이(Gy)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을 1초 미만의 짧은 순간에 조사한다. 암 타격 능력은 유지하면서 정상 조직 보호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와 양성자 치료를 병합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플래시 기반 양성자 치료 역시 아직 태동기 단계인 만큼 전 임상 연구를 거쳐 초정밀 치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카데미한 도약을 그리고 있다. 지난 10년이 치료 수용과 운영 안정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임상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만들고 치료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플래시 기술, 면역항암 병합 치료, 양성자와 중입자를 결합한 다종 이온 치료가 그 축이 될 것이다. 치료를 많이 하는 센터를 넘어 학문적 성취로 평가받는 센터가 되고자 한다.”

-양성자 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양성자 치료가 모든 암에 적용되는 만능 치료는 아니다. 다학제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신영경 기자



전문의 칼럼 김혜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교수

6주 이상 이어진 가려움증, 전신 질환 경고 신호

간·신장 질환 등 초기 증상 가능성
원인별 치료하고 생활습관 관리

한다.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접촉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습진 등 피부 질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간이나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 혈액 종양, 자가면역 질환 등 전신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신경계 질환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진통소염제, 항생제, 항암제, 항경련제 등

은 심한 전신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혈액검사만으로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 금속, 방부제, 세제, 염료, 향료 등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려면 접촉 알레르기 칩포검사(patch test)가 필요하다. 가려움증이 습진처럼 보이더라도 편평ة선, 포진피부염, 천공성 고원질증 등 다른 질환일 수 있으므로 피부 조직검사와 면역 형광검사를 통해

감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신장 기능 저하나 담즙 정체, 자가면역 질환에 체중 감소, 식은땀, 체력 저하를 동반한 경우라면 림프종 같은 암에 의한 가려움증일 수도 있다.

가려움증 치료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 상태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효과적이다.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에는 일차적으로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조절 연고가 사용된다.

기본적인 치료로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직접 조절하는 표적치료제, JAK 억제제, 생물학제제 등 신약이 등장해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광선 치료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히 협대역 자외선 B(NB-UVB)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투석 환자의 전신 가려움에 도움을 준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간기증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立대학 연경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박사
- 임상 26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장내 미생물 균형 활용한 '모발유산균' 모발 성장 효과 입증

요즘 탈모·모발 문제를 겪는 성인 남녀가 늘고 있다. 스트레스, 환경 변화, 영양 불균형의 영향이 큰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탈모 환자 수는 24만1217명으로 남성 13만6463명, 여성 10만4754명이다. 병원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머리카락이 부쩍 가늘어지거나 두피에 뾰루지가 자주 나오고 유·수분 균형이 깨져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는 문제를 호소하는 이도 많다.

최근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탈모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덩달아 탈모 신약이나 모발 건강 제품 관련 관심도 커졌다. 그간 탈모 치료제는 대부분 남성형·여성형 탈모 등 성별 호르몬을 기반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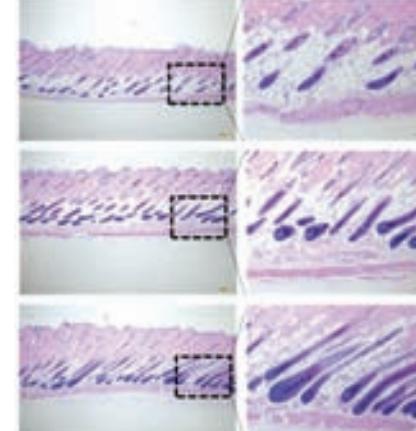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인 만큼 사용에 대한 부담이나 장기 복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 만큼 남녀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비(非)호르몬 기반의 탈모·모발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 가운데 최근 장내 미생물 균형을 활용한 생리학적 접근법인 '모발유산균(LB-P9)'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별 상관없이 모낭에 산소·영양 공급

모발유산균(LB-P9)은 인체에 유익한 군주를 활용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전신 대사와 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장·피부·모낭·죽'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호르몬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성별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장·피부·모낭·죽'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피부나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 소통 경로를 뜻한다. 이는 장이 전신 건강, 특히 피부 부속 기관인 모낭의 기능과 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

새로운 탈모·모발 관리 솔루션

24주간 섭취 후 모발 건강 지표 개선 단순 영양제와 차별화된 작용 원리
호르몬에 영향 없어 장기 복용 가능



위 사진부터 대조군, 모발유산균(LB-P9) 저용량군, 모발유산균(LB-P9) 고용량군의 피부 세로 단면. 확대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고용량일수록 털이 굵고 건강한 형태를 띈다. 자료=Food Science and Animal Resources(2024)



모발유산균(LB-P9)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전신 대사와 면역을 조절해 모낭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 Gettyimagesbank]

히 모발유산균(LB-P9)은 모발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성장 인자의 변화를 유의하게 이끄는 군주로, 단순 영양제나 외용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

모발유산균(LB-P9)을 이용한 인체 적용시험,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모발 성장 인자인 VEGF, IGF-1, β -catenin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모낭 세포의 활성화와 성장기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술지 'Food Science and Animal Resources'(2024)에 실린 모발유산균(LB-P9) 동물실험 결과 ▶모발 두께

증가 ▶모낭 수 증가 ▶피부층 두께 증가가 관찰됐으며, 항산화 효소(SOD) 증가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 저감 효과도 보고됐다. 이는 성별에 무관하게 모낭 기능 저하와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학술지 'Frontiers in Nutrition'(2024)에 발표된 인체 적용시험에선 만 19~60세 한국 성인 남녀 73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을 나눠 비교한 결과, 하루 1 캡슐씩 모발유산균(LB-P9)을 24주간

섭취한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모발 윤기가 215%, 모발 탄력은 44% 증가하며 모발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모발 품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탈모 관리 시장은 단순히 두피 표면만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 건강 상태가 모낭 기능과 모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전신 관리' 개념이 확대되는 추세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염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같은 전신 요인이 모낭의 염증 반응과 모발 성장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다.

이로 인해 장 건강과 면역 균형을 돋는 영양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이 모발 관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탈모를 두피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지 않고, 체내 환경을 바로잡아 모낭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돋는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기식 출시

모발유산균(LB-P9)은 모발 건강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기능성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초의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갖춘 개별인정원 유틸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모발 유산균(LB-P9)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지난해 11월 정식 출시됐다.

이 점에서 모발 건강에 도움된다 고 알려졌으나 그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맥주효모·비오텐 등 의 원료를 사용한 모발 건강 표방 식품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모발유산균(LB-P9)은 성별과 탈모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김선영 기자

병원리포트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동현 교수팀

잡음 많은 광용적맥파, AI로 심박수 분석 정확도 높여

심장 박동과 관련된 신호만 분리
심전도로 측정한 값에 더 가까워져

광용적맥파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빛을 비춰 혈류 변화를 감지, 심박수를 측정하는 생체 신호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심박수를 재는 보편적인 방식이지만, 일상적인 움직임에 한

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동현 교수팀은 잡음이 섞인 광용적맥파 신호에서 심장 박동과 직접 관련된 신호만을 분리해 심박수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방법을 내놨다.

이들은 잡음이 섞인 광용적맥파를 하나의 불완전한 신호로 보지 않고, 여

러 생리적 신호 성분이 혼합된 결과로 해석했다. 이에 여러 신호가 섞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근원 신호를 분리하는 블라인드 소스 분리(BSS) 개념을 자기지도학습 AI 모델에 적용했다. 그 결과 하나의 광용적맥파가 여러 근원 신호로 분리됐고, 이 중 심장 박동 패턴이 뚜렷한 신호만을 선별해 심박수 분석에 활용했다.

연구진이 얻은 값은 정확도도 높은

에서 광용적맥파 신호를 그대로 사용할 때보다 심전도 기준 심박수와의 오차가 14.4 ± 10.6 bpm에서 4.9 ± 5.1 bpm으로 감소했다. 이는 심전도로 측정한 값에 더 가깝게 수치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심전도 기준 심박수와의 상관계 수도 0.407에서 0.740으로 증가했다. 상관계수는 두 값의 변화 양상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기준 신호와의 일치도가 높음을 뜻한다. 수치 개선은 수술 환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수 기자

락빌의 건강지킴이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료,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Dr. 황지연

** Amerigroup 받습니다.

www.drhwangki.com

• 연회원제 주치의 프로그램 •

1단계 기본 (Essential)

- **연회비:** \$1,800 (월 \$150)
- **포함:** 연 2회 종합검진 (CBC, CMP, TSH, Lipid, HbA1c, UA, EKG), 원격진료 4회, 약물 검토·처방 개선, 전문의·병원 연계
- **정기 관리 기본:** 6개월마다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4회 예약 창 제공

2단계 프리미엄 (Premium)

- **연회비:** \$3,000 (월 \$250)
- **포함:** 연 4회 종합검진 (동일 항목), 원격진료 8회, 독감백신 1회, 약물 검토·처방 개선, 분기별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8회, 독감백신 시즌 내 접종, 전문의·병원 연계

등록비: \$250 (1회)

Telehealth 추가비: 포함 회수 초과 시 \$50/회 (사전 고지 후 \$50/회 결제)

연장/갱신: 만료 45일 전 갱신 알림, 30일 전 취소 가능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

‘한 개비, 한 잔쯤이야’ … 이런 인식 탓 번번이 금연·금주 실패

금연과 절주는 매년 빠지지 않는 새해 목표다. 누구나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만, 쉽게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기도 하다. 시작이 늦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담배와 술을 줄이거나 끊는 순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다. 새해 건강관리의 출발선은 일상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관리법에 있다.

담배는 흔히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고 표현된다. 과장이 아니다. 담배 연기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수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건강에 이로운 성분은 사실상 없다. 흡연량을 줄이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한 건강상 위험 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확실한 금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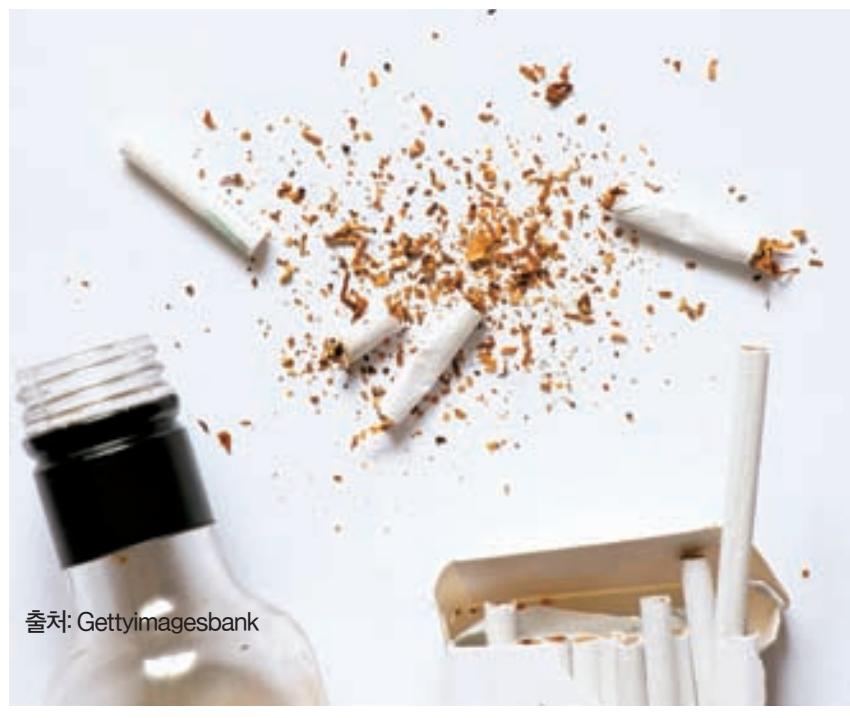
겨울철 흡연, 혈압·심장 부담 가중
흡연은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고혈압과 동맥경화 위험을 높인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런 신호가 더 뚜렷해진다. 고려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배 교수는 “추운 환경에선 체온 유지를 위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전신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며 “이 상태에서 흡연이 더해지면 혈압 상승과 함께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피

술·담배 끊으려면

니코틴 의존은 의지 아닌 치료 영역
병의원 금연클리닉서 도움 필요
연속 음주 금물, 공복엔 먹지 말아야

로감이나 숨 가쁨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직장인 김모(47)씨는 출근길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찼다. 아침이면 기침이 먼저 나왔고, 온종일 몸이 무거웠다. 새해를 계기로 김씨는 한 달 전 담배를 끊었다. 그는 “금연을 하고 나서야 그동안 몸이 보내던 신호를 알아챘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숨 가쁨과 기침이 눈에 띠게 줄었다”고 말했다.

금연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담배를 끊은 지 20분 후부터 혈압과 맥박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한다.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 1년 후에는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연을 ‘참아야 하는 짜움’으로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다. 담배의 해로움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니코틴 의존 때문이다. 금연 과정에선 불안, 두통,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같은 니코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이 교수는 “니코틴 의존은 뇌의 보상 체계와 연결된 중독 문제”라며 “반복



금연 실패는 뇌의 보상 체계와 연결된 중독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

적인 금연 실패는 의지력 문제가 아닌 치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 금연클리닉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이롭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 기간과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해 금단·갈망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다. 금연 보조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니코틴 패치·껌·사탕은 금단 증상을 줄이는 보조 수단이다. 패치는 흡연량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부착한 상태에서 흡연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 흡연 욕구가 강해지는

시간대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행동을 바꾸는 것도 효과적이다.

술은 흔히 인간관계의 윤활유처럼 여겨진다. 최근 후동료들과 나누는 술 한잔을 일상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직장인 박모(45)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이은 술자리를 거치며 속 쓰림과 피로를 느꼈지만 박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아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다. 최근 건강검진에선 뜻밖의 지방간을 진단받았다. 박씨는 “폭음은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소량 음주도 간·심장·위 위협

자연스러운 술 문화 속에서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은 쉽게 가려진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인식이 과음을 일상으로 만든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 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은 57.1%였다. 한 번에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 비율도 12%에 달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과음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셈이다.

알코올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 점막을 손상하고 탈수를 유발한다. 고려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전신에 독소로 작용한다”며 “특히 얼굴이 빨개지는 등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음주에 더 큰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연기푸 이어지는 술잔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간이다.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부르고 간염, 간경변, 말기 간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량의 음주도 위험하다. 고려대구로병원 연구(2025)에 따르면 주당 소주 6~7잔만 마셔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약 8% 증가했다. 비음주자가 가벼운 음주를 시작하면 위암 발생 위험이 약 1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분당서울대병원, 2024)도 있다. 반대로 금주하거나 음주량을 줄이면 위험은 감소했다.

신영경 기자

통증 잡으려다 간·위 망가져 … 진통제 성분·부작용부터 따져라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의 약약’에선 복잡한 설명 서 대신 꼭 알아야 할 복약 정보를 선별해 전한다. 안전한 복약 생활을 돋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찬 바람이 불면 몸이 움츠러들어 몸 곳곳에 통증이 생긴다. 감기에 걸려 몸살이 오기도 한다. 이럴 때 손이 가는 건 약 상자다. ‘진통’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많은 이들이 설명서를 읽기도 전에 약부터 삼킨다. 하지만 진통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약은 아니다.

성분·기저질환 고려해 선택해야

통증이 있을 때 흔히 사용하는 약은 크게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나프록센 등을 포함하는 비스테로이드 성소염진통제(NSAIDs)로 나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로, 중추

신경계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진통·해열 효과를 낸다. NSAIDs는 중추가 아닌 말초의 혈관 내피 세포벽에서 발생하는 프로스타글란дин(PGE2) 생성을 억제해 진통·해열 효과에 더해 염증을 가라앉힌다. PGE2는 통증과 발열을 유발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다.

진통이 목적일 땐 일반적으로 NSAIDs가 우선 고려된다. 다만 위궤양이나 신장 질환 환자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아세트아미노펜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가톨리대 약학대학 임성실 교수는 “PGE2는 혈관을 확장해 위 점막 혈류를 늘리고, 위산을 희석해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NSAIDs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장기 복용 시 궤양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PGE2 생성이 억제되면 신장 혈류도 감소해 신장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소

어린이가 성인용 복용 때 급성 중독

아·청소년이 독감이나 수두에 걸린 상태에서 NSAIDs를 복용하면 뇌·간 손상, 혼수 등을 동반하는 라이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아세트아미노펜은 우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손상 위험이 있다.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음주나 과다 복용 등으로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 복용 주의… 헷갈릴 땐 약국으로 관절염과 감기, 두통과 독감 등 증상이 겹쳐올 때 약을 섞어 먹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정채

진통제 선택 가이드

	아세트아미노펜	NSAIDs
효능	진통, 해열	진통, 해열, 소염
적합한 증상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등	골관절염, 치은염 등
주의 대상	생활 통증 및 단순 발열	염증을 동반한 통증
	평소 음주가 잦은 사람, 간 질환 환자	천식 환자, 위장관·신장·심혈관 질환 환자



출처: Gettyimagesbank

린 약사는 “종합감기약, 근육통 완화제 등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여러 약을 함께 먹으면 1일 최대 허용량을 넘기기 쉽다”고 경고했다. 진통제는 일정 용량을 넘으면 효과는 늘지 않고 부작용만 커진다. 여러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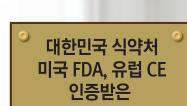
에 다닐 때도 주의해야 한다. 임 교수는 “병에 걸렸을 때 몸의 첫 반응은 염증으로, 여러 진료과에서 NSAIDs를 처방한다”며 “병원 간 처방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같은 성분이 중복 처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기자

세라젬

2026 설 명절, 세라젬이 준비한 특별 혜택을 만나보세요! CERAGEM

목부터 어깨, 허리, 골반까지 몸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누워보세요. 이유를 압니다. 지금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마스터 V9 입고 특별 할인

MASTER V9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특허)
- 북부 온열 도자(V5, V6, V7, V9), 에어셀 다리 마사지(V6, V7, V9)-혈액 순환 개선
- 목, 어깨, 등, 허리, 골반에 집중 온열(최고 149°F) 마사지를 제공하여 척추 통증과 근육통 완화
- 마스터 V9 시그니처 - 이지 리클라이닝, 5세대 세라코어 엔진, 베드 모드 & 체어 모드



모델 M6



모델 M10



모델 M6

우아함을 위한 디자인,
섬세하고 정교한 휴식 기술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모델 M10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랙스 온열 케어로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
- 북부 온열 진동 도자(모델 M4, M6), 에어셀 다리 마사지(M6)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으로 다채로운 마사지 모드 선택
- 전신을 빈틈없이 풀어주는 5단계 전신 에어 포켓 마사지(M10 모델)
- 직가열 온열 마사지 불(최고 149°F)로 효과 극대화(특허 M6, M10 모델)
- 척추 라인 스캔으로 척추 길이와 굴곡도 측정하여 체형에 맞춘 최적의 마사지(M6, M10)

세라젬 공식 판매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 료 과 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an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0년 은퇴 시대, 9%만 “계획 있다”

60~69세 은퇴자 46% “90세 이상 살 것”

‘장수 문해력’ 부족 재정계획 부족 현실로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수십 년의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싱크탱크 TIAA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은퇴 기간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57%는 60~69세에 은퇴할 계획이며 46%는 9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가 30년 이상 은퇴 생활을 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 30년 이상 은퇴 생활을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 이들은 9%에 불과했다.

TIAA 연구소는 교직원과 공공·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의 은퇴 전문 비영리 금융기관인 TIAA 산하의 싱크탱크다.

TIAA의 코트니 김슨 은퇴솔루션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은퇴 기간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장거리 여행에 나서면서 자동차에 절반만 기름을 넣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멈출 수밖에 없다. 은퇴도 마찬가지다. 계획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은퇴 자금이 지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슨 CEO는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 은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설계한다”며 “자신의 생애주기

만큼 충분히 저축하지 않으면 결국은 퇴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장수 문해력’ 부족 탓이라고 분석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이들이 인지능력 저하나 시장 변동성, 인플레이션 같은 리스크는 고려하면서 ‘장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김슨 CEO는 “장수 리스크는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4대 위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적절한 계획으로 가장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다. 김슨 CEO는 “30년을 가정한 은퇴 설계는 실제보다 길다고 해도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된 90년 전과 비교해 평균 수명이 17년이나 늘었다”며 그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할 소득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세대가 짧은 수명이 아니라 긴 수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은퇴 자금 고갈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슨 CEO는 30년 넘는 은퇴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계획만 잘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 가지 실천법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30년 동안 은퇴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30년 준비를 생각하고 준비한 이들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을 제시했다.

▶ 끝을 먼저 그려라 먼저 전체 은퇴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 김슨 CEO는 “대부분은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80세나 85세, 90세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사람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있을 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지, 간병인과 생활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라”며 “은퇴 초기 몇 년뿐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꿈을 뒷받침하려면 저축 전략이 필요하다. 김슨 CEO는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힘이 커지지만 은퇴 직전이라도 회사 매칭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저축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평생 보장 소득원 확보 어려움에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평생 보장되는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도 핵심이다.

김슨 CEO는 “베이비붐 세대처럼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싸

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퇴직금이나 저축을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환하면 살아 있는 동안 지속 가능한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후 삶은 평생의 재정 지속성 확보에 달려있다. 예상이 틀리더라도 은퇴는 길게 잡는 것이 현명하다. 기준을 ‘더 긴 수명’으로 바꾸고 계획의 포인트를 ‘언제 그만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에 둬야 안전하다.

안유희 객원기자

베이비붐 세대도 셀폰에 푹 빠져

절반이 하루 3시간 이상 사용
40% “손에 없으면 불안” 응답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Z세대만이 아니다. 인터넷이나

오기 이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도 셀폰에 빠져 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셀폰을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중독 전문 기관 ‘어디션리소스닷넷’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

대의 절반이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5명 중 1명은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디지털 의존이 짙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해석한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셀폰 사용이 개별적 특성을 넘어 세대 전체의 공통된 행동 패턴으로

나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1시간 안에 셀폰을 확인한다”는 이들은 50%에 이르렀으며 “셀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거나 불편하다”고 답한 이들도 40%나 됐다. 30%는 “식사 중 자주 또는 항상 셀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올해 셀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들도 30%를 차지했다.

내년 COLA 첫 전망치 발표 올해보다 적은 2.5% 예상

2027년 소셜연금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COLA)이 2.5%가 될 것이라는 첫 전망치가 나왔다. 이는 수십 년간의 평균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2026년보다는 0.3%포인트 낮다.

비당파적 단체인 ‘시니어연맹(The Senior Citizens League)’은 COLA가 2.5% 오를 경우, 현재 평균 소셜연금 액인 월 2071달러는 약 52달러 늘어난 2123달러가 된다고 발표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오는 10월 중순에 2027년 COLA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전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COLA 전망치는 공식 발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65세 이상 6000불 공제 2025세금보고 시작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금보고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

상은 개인당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67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 소득 4만4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 즉 22% 세율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달러까지 절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약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시니어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납세자다.

독신은 조정총소득(MAGI) 기준 7만 5000달러 미만일 경우 6000달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보고자는 17만5000달러 미만이면 1만2000달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育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力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시간을 구부린 연주... 임윤찬은 '환상'이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중앙음악콘서트에서 임윤찬(왼쪽)은 지휘자 정명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슈만의 협주곡을 연주했다. 임윤찬이 한국 무대에서 슈만의 협주곡을 연주한 건 이번 공연이 처음이다.

김성룡 기자

'중앙음악콘서트' 슈만 협주곡 연주 '4개의 음' 속도 바꾸며 환상성 고조 드레스덴 악단과 내밀한 음악대화 슈만 뜻대로 화려함 대신 조화 택해 정명훈 지휘로 소리 깊어지고 풍성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신중하게 본론으로 들어갔다. 로베르트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은 인상적인 네 개의 음을 첫 주제로 삼는다. '도'에서 시작해 아래로 '라'까지 내려가는 음형이다. 임윤찬은 네 개의 음 사이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연주하며 서정적인 노래를 시작했다.

27일 오후 중앙음악콘서트가 열린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임윤찬은 지휘자 정명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슈만의 협주곡을 연주했다. 임윤찬이 2023년부터 연주하기 시작한 이 협주곡을 한국 무대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슈만의 협주곡을 북미·유럽 등에서 지속해서 연주하며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슈만은 이 협주곡을 35세에 완성해 초연했다. 화려한 피아니스트를 꿈꿨

지만 부상으로 좌절했던 그는 "기교적인 협주곡은 쓰지 못하겠다"는 편지를 아내인 클라라에게 남기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내밀한 대화를 그려냈다. 독주자가 기량을 과시하는 대신 마치 작은 규모의 실내악처럼 오케스트라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임윤찬은 슈만의 정신을 이해해 화려함 대신 짜임새를 선택했다. 음 사이를 정밀하게 조정해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고, 악단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함께 진행했다. 특히 슈만이 평생의 사랑인 클라라의 이름을 음표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첫 주제, 네 개의 음은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의미를 더했다. 임윤찬 특유의 시간을 구부리는 해석이었다.

이 곡은 본래 환상곡이었다. 슈만은 '환상곡'이라는 제목으로 1악장을 작곡했고 훗날 여기에 두 개 악장을 덧붙이면서 협주곡으로 명명했다. 임윤찬은 많은 장르의 작품에서 환상성을 발견하는 피아니스트다. 슈만의 협주곡에서도 그는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곡의 특성을 자유롭게 살펴냈다. 특히 1악장 제시부 이후의 갑작

스러운 느린 부분(안단테)에서 환상의 요소가 제대로 살아났다. 오케스트라 없이 연주하는 카덴차 또한 자유롭게 흘러가는 하나의 환상곡과 같았다.

임윤찬은 충분히 노래하고 음악에 머물면서 상상하고 꿈꾸는 피아니스트다운 해석을 제시했다. 슈만 협주곡의 기존 음반들과 비교해 보면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현대적인 해석보다는 알프레드 코르토의 시적인 표현에 가까운 연주였다.

8분음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3악장에서도 임윤찬은 민첩하되 과장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의 스타카토가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국제 콩쿠르의 깊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특별히 유명한 2악장의 '고잉홈' 멜로디는 보다 영적이고, 4악장의 광파르는 호전적이기

보다는 따뜻했다. 3악장에서는 현악기의 소리를 날카롭게 다듬어 드레스덴 사운드로 극적인 드라마를 썼다. 드보르자크와 같은 두텁고 웅장한 교향곡에 강한 정명훈은 한국 투어를 위한 작품으로 '신세계로부터' 교향곡을 특별히 선곡했다고 한다.

정명훈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2001년 처음 연주했고 2012년에는 이

때까지 드레스덴 오페라의 감독으로 일하며 독일 오페라의 부흥을 이끌었고 훗날 바그너 오페라의 탄생에도 영향을 줬다. '마탄의 사수'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독일 오페라의 정수이며 47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단골 연주곡이기도 하다.

지휘자 정명훈은 오랜 전통의 오케스트라와 특별히 드라마틱 한 사운드를 들려줬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호흡으로 풍성하고 깊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특별히 유명한 2악장의 '고잉홈' 멜로디는 보다 영적이고, 4악장의 광파르는 호전적이기 보다는 따뜻했다. 3악장에서는 현악기의 소리를 날카롭게 다듬어 드레스덴 사운드로 극적인 드라마를 썼다. 드보르자크와 같은 두텁고 웅장한 교향곡에 강한 정명훈은 한국 투어를 위한 작품으로 '신세계로부터' 교향곡을 특별히 선곡했다고 한다.

정명훈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2001년 처음 연주했고 2012년에는 이

악단의 첫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됐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등의 투어에 함께 했고 8번의 내한 공연 중 5번을 지휘했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말러 유스 오케스트라의 젊은 단원들이 함께해 특별함을 더 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미래 세대 음악가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인다.

1923년부터 오케스트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러 유스 오케스트라와도 협력을 계속한다. 이번 내한 공연 투어에는 현악기 단원 10명이 합류해 역사적인 악단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 임윤찬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국 연주를 이어나간다. 28일 롯데콘서트홀, 30일 평택아트센터, 31일과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한국 투어 이후 임윤찬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 또 홍콩에서 슈만 협주곡을 다시 연주한다.



정명훈

중앙일보와 함께 상쾌한 하루를 보내세요~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종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국 한방병원
New Hampshire Ave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침습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침습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11년 만의 복수전, 수퍼볼 리매치 확정

제60회 수퍼볼: 운명의 재회
철벽 수비 패츠 vs 부활 시애틀

11년 전 세계 미식축구 팬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골라인 인터셉션'의 두 주인공이 수퍼볼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다.

제60회 미국프로풋볼(NFL) 수퍼볼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시애틀 시호크스의 재대결로 확정됐다.

왕조 재건을 노리는 뉴잉글랜드는 25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덴버 브ロン코스에 10-7로 승리했다.

시애틀은 같은 날 위싱턴주 시애틀 루멘 필드에서 열린 내셔널풋볼콘퍼런스(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LA 램스에 31-27로 짜릿한 승리를 따냈다.

두 팀은 2015년 2월에 열린 제49회 수퍼볼 이후 11년 만에 다시 최고의 무대에서 재회한다.

당시 시애틀은 경기 종료 직전 골라인 10야드 앞까지 전진하고도 패스를 감행하다가 뉴잉글랜드의 말콤 버틀러에게 인터셉션을 허용, 24-28로 무릎을 끓은 아픈 기억이 있다.

뉴잉글랜드의 강점은 '짠물 수비'다. 이번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평균 8.7



지난해 2월 9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수퍼볼 경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연주 중 경례하고 있다. [케빈 라마르크·로이터]

점만을 내주는 철벽 수비로 2000년 볼티모어 레이브스 이후 가장 강력한 방패를 자랑한다. 팀의 레전드 출신인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은 부임 첫해 팀을 수퍼볼로 이끌며 '선수와 감독으로서 같은 팀에서 수퍼볼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또한 뉴잉글랜드 프로 2년 차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는 23세의 나이로 역

대 두 번째 최연소 수퍼볼 선발 쿼터백이라는 기록을 예약했다. 이에 맞서는

시애틀은 저니맨 쿼터백 샘 다넬드의

활약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2018년 전체 3순위 지명 후 5번째 팀

인 시애틀에 등지를 틀던 다넬드는 챔피

언십 경기에서 346야드 패싱과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

했다.

다넬드는 "나를 향한 의구심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매일 묵묵히 훈련했고, 결국 해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 팀은 2월 8일 캘리포니아주 샌타 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빙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뉴잉글랜드는 7번째 우승을 노리고,

시애틀은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한인 페굴라, 호주오픈테니스 8강 진출

디펜딩 챔피언 키스 꺾고
상승세 아니시모바와 격돌

한인 제시카 페굴라(6위)가 '디펜딩 챔피언' 매디슨 키스(9위·이상 미국)를 물리치고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1억1150만호주달러·약 800만달러) 여자 단식 8강에 올랐다.

페굴라는 25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9일째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키스를 2-0(6-3 6-4)으로 물리쳤다.

어머니 킴이 1970년대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페굴라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호주오픈 8강에 올랐다.

2024년 대회에서는 2회전, 지난해 대회에선 3회전에서 탈락했다. 페굴라는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2024년 US오픈 준우승이다.

지난해 대회 결승에서 아리나 사발렌카(1위·벨라루스)를 물리치고 챔피언에 올랐던 키스는 이번 16강 탈락에 랭킹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페굴라와 키스는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절친' 사이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이날까지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선다.

이날 경기에서는 페굴라가 비교적 여유롭게 이겼다. 첫 두 세트에서 모두 게임 점수 4-1로 기선제압 하더니 흐름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했다.

페굴라는 앞서 2021~2023년 3차례 호주오픈 8강에 올랐으나 한 번도 그다음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페굴라의 다음 상대 역시 같은 미국 출신의 어맨다 아니시모바(4위)다.

아니시모바는 이날 중국의 왕신위(46위)를 2-0(7-6 6-4)으로 물리



제시카 페굴라가 매디슨 키스를 상대로 4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제이미 조이·로이터]

치고 8강에 올랐다.

상대 전적에서는 페굴라가 3전 전승으로 앞서지만, 세 경기 모두 아니시모바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2025년 이전에 치러졌다.

그전까지 30~40위권에 머물던 아니시모바는 2025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하고,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윔블던, US 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며 10위권의 강자로 떠올랐다.

페굴라와 아니시모바 모두 이번 대회 16강전까지 무실세트 승리 행진을 벌였다.

남자 단식에서는 로렌초 무세티(5위·이탈리아)가 테일러 프리츠(9위·미국)를 3-0(6-2 7-5 6-4)으로 물리치고 8강에 올라 노바크 조코비치(4위·세르비아)를 상대하게 됐다.

조코비치는 16강 상대 야쿠프 멘시크(17위·체코)가 복근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8강 고지에 손쉽게 올랐다.



이정후 "WBC 4강 갈것"
에이스 웹과 맞대결 고대

"국가를 대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가는 건 큰 영광입니다. 팀 동료인 로건 웹과 맞대결할 기회가 온다면 정말 짜릿할 겁니다."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이정후(27·사진)가 다가오는 3월 WBC에서 소속팀 에이스와의 맞대결을 고대했다.

이정후는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 샌라몬에서 열린 자이언츠 팬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현지 취재진 및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표팀의 주축인 이정후가 미국 대표팀 선발 투수로 나서는 웹을 만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C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8강에서 D조(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 1위 또는 2위와 대결한다.

미국은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이정후는 "웹과 대회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토너먼트 상위 라운드에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한국 대표팀)의 뜻"이라며 4강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더닝, 시애틀과 마이너 계약



메이저리그의 한인 투수 데인 더닝(사진)이 시애틀 매리너스 소속이 된다.

매사추세츠주 지역 매체 매스라이브

의 크리스 코티요 기자는 지난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더닝이 시애틀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더닝은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선수다. 2016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위싱턴 내셔널스 1라운드 지명을 받아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고봉준 기자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번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각종 비자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망명 신청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침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토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VA

MD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복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발/무릎 통증/자주崴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청소년 성장클리닉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UMEKEN

우리 건강도 소화도

이제, 동시에 케어하세요!

제도아리
(자색강황)발효 양배추
엑기스비터멜론
(여주)5대
소화 효소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아밀라아제
락타아제

UMEKEN

沖縄ガジュツ
**Okinawa
Zedoary**
with Digestive Enzymes

Dietary Supplement

NEW

Made
JAPAN우메肯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5대 소화 효소로 업그레이드된 우메肯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미야코섬 제도아리에 발효 양배추와 여주, 5대 소화효소를 더해
소화를 원활하게 돋고,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케어합니다.*

쓰린 속을 부드럽게, 더부룩함도 시원하게!
위장은 건강하리, 소화는 빠르리!

오키나와 우메肯 농장의 최상급 제도아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소화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식곤증, 식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6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편집 2층)



Little River Trpk.
한국일보
★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Lee Hwy.
Centreville Rd.

엘리코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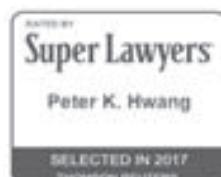


Baltimore Nat'l Pike
I-70
Columbia Pike



SHK|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s.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1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렬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전문기 · 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장·일·보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는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 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 4. 그릴스 몰 300불
- 5. 큰 버너 200불
-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품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클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홍.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포토 맥 싱글 흘 렌트 \$4,000
방 3, 화 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렌트
방 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흘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흘 2층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 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흘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 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흘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 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엑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정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점,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텔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 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모집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흘 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
니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페어엑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리셉션 담당자/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
어 가능자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편의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 담당자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닥터 오피스 리셉션 담당자 모집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 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티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자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챠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 담당자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 챠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 병원 Front Desk(레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중앙일보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캔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톤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합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티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바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티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티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타운홈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택,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퍼포먼스를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홈 \$3,000
방4,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타운홈 \$2,800
방3,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홈 \$2,750
방3,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홈 \$2,600
방3,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홈 \$1,500
방2,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홈 \$3,000
방2, 화2.2, 2 Assist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차고 2, 앤드 유니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 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 고양이 가능
등,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 콘도, 업데이트한 부엌(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 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밸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703-477-3114

비엔나 마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사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 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 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 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이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 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 주무실 분
703-732-1246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여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 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룸 밝고 깊은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룸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룸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 아웃, 간단한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옥실 딸린 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트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키우는 분에게 좋습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룸 윗층(아랫층과 원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 2개, 넓은 뒷마당, 395/495/95번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룸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 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챈들리 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 2, 3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4. 센터빌 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 2
▶ 703-231-55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3.5, 차고 2, 앤드 유니,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행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치고 2, 지하을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치고 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full bath, 워크
아웃, 브래더/28,66,29 교통요지, 2017 리
모델링
▶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치고 1
2. 센터빌 타운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치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알디 싱글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치고 2, 전체 마루, 굿 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 2
13년 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덤로밍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학교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워 라이센스/푸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학교,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소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트립(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렌스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종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치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블랙,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씨,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헤론,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데크, 인더너스 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접경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미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

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오래되고 잊은 고장이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국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태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태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사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눈썹, 아이라인, 입술

▶속눈썹/헤어 생장술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독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 자

United Mortgage 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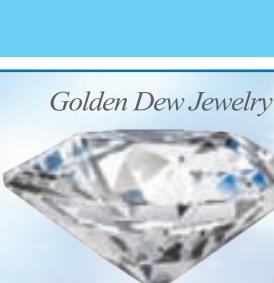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كت시티 롯데플라자 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BBC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홈스 플러밍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보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k: I got an e-mail from one of my old high school buddies today.

마크: 옛날 고등학교 친구한테 오늘 이메일을 받았어.

Erin: Is that good or bad?

에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Mark: It's good. I haven't heard from him for a long time.

마크: 좋은 거지.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거든.

Erin: I've been out of touch with my high school classmates.

에린: 난 고등학교 동창들과 소식이 끊겼어.

Mark: I've got two or three others that keep me posted about what they're doing.

마크: 난 계속 앤부 주고받는 친구는 두 세 명돼.

Erin: It's been hard for me to keep in touch with my classmates.

에린: 난 동창들과 연락 주고 받는 게 어렵던데.

Mark: I guess we all get so involved in our lives - 마크: 전부 자기 사는 일에 바쁘니까...

Erin: So it's easy to drift apart.

에린: 그래서 쉽사리 서로 멀어지는 거지.

Mark: Well don't feel too bad about it. You've got a lot of friends.

마크: 그렇다고 기분 상하지는 마. 너 친구 많잖아.

Erin: I know but you are lucky.

에린: 그건 그렇지만 네가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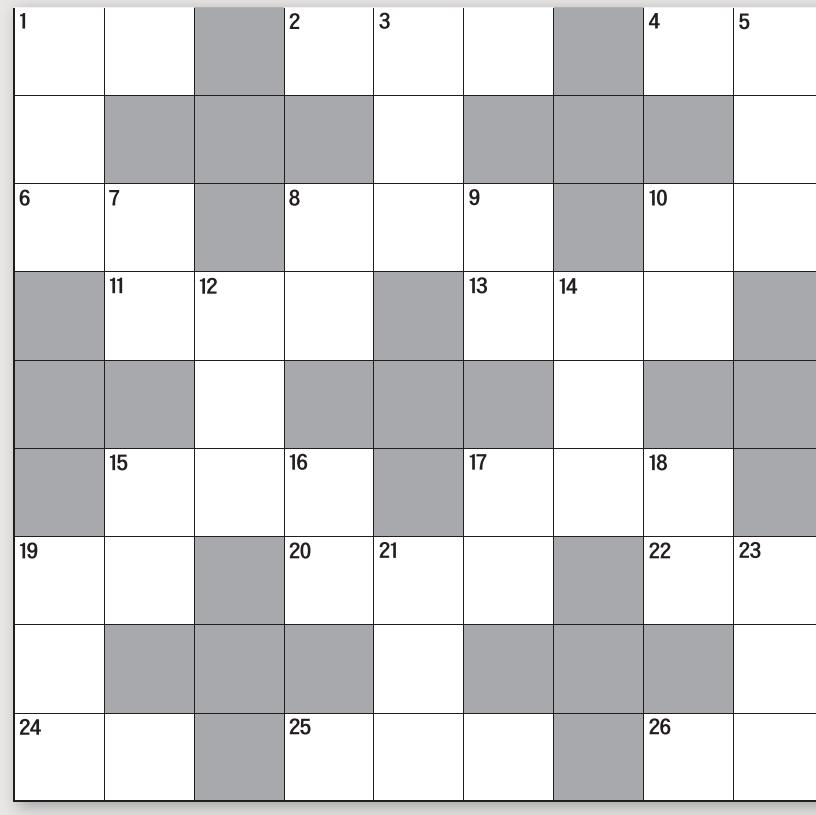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 out of touch with (someone): (누구와) 소식이 끊기다.

“She's been out of touch with her parents for six months.” (그녀는 부모와 소식이 끊긴지 5개월이 됐어.)

▶ keep in touch with (someone): 연락을 주고 받다.

날마다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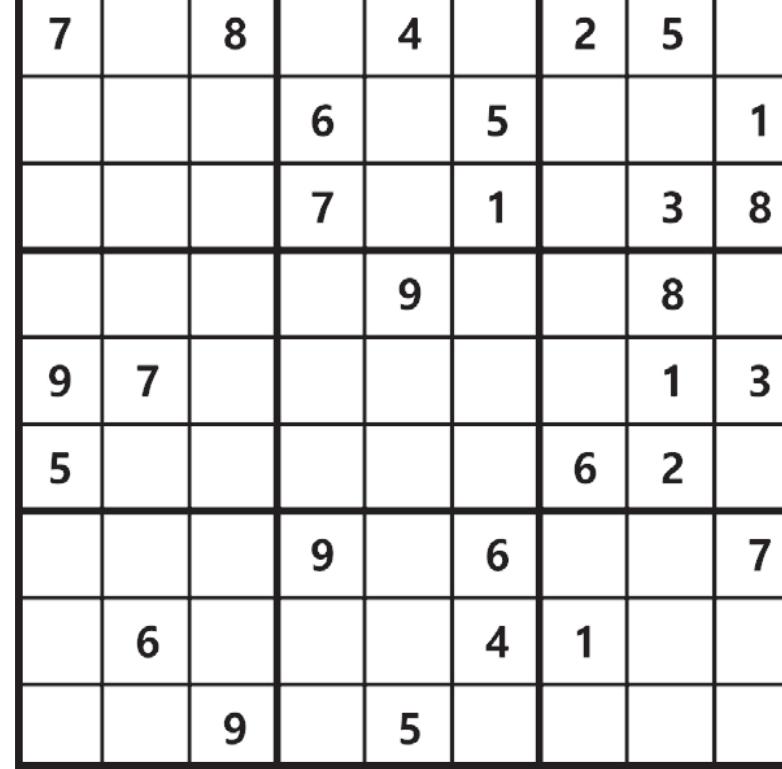
가로열쇠

(1) 선경에 사는 여자 신선. 나무꾼과 ~ (2) 생선이나 조개류 따위를 말린 식품. 나는 ~ 가게에 가서 쥐포와 마른오징어를 사왔다. (4) 음식집에서 흰밥에 국과 몇 가지 반찬을 끼워 파는 한 상의 음식. 그 한식집은 조기 구이와 된장국을 곁들인 ~이 일품이다. (6) 야구에서, 이루타 이상의 안다 (8) 마음이 좁고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돈을 그리 많이 벌어도 어디 가서 돈 낼 줄 모르는 ~다 (10) 손아래의 여자아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 (11)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 (13) 터를 잡은 자취. 정당한 근거나 이유. 그는 우리의 요구를 ~가 없는 주장이라며 무시했다 (15) 야구에서, 점수를 얻게 하는 안다 (17) 산이나 들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 (19) 아내의 남자 형제 (20) 이마로 무엇을 세게 받아 침 (22) 품종이 섞인 보통의 개 (24)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 내 여자 친구는 자신이 ~에 공주였다고 믿고 있다 (25) 어금니가 다 난 뒤 성년기에 맨 안쪽 끝에 새로 나는 작은 어금니 (26)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세로열쇠

(1) 사막에 사는 식물. 한자말의 뜻은 신선의 손바닥이라는 뜻이죠 (3) 어린아이에게 등에 업히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5) 오천 년 (7) 어떤 대상이나 세력을 쳐서 거꾸러뜨림 (8)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그런 ~와 공갈에 안 넘어간다 (9) 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 기호는 L (10) 자매 중에 나이가 많은 쪽 여자 (12) 24시간 문을 여는 접화점. 주로 일용 접화, 식료품 따위를 취급한다 (14) 쌈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군사상의 공적을 세운 이야기 (15) 아들을 낳음 (16) 허물이나 결함을 나무라거나 편잔함. 아버지는 반찬 ~이 심해서 늘 어머니를 힘들게 하셨다 (17) 뾰족하게 내밀거나 도드라진 부분. 아버지의 병은 종양이 생긴 서너 개의 ~만 제거하면 완쾌된다고 한다 (18) 불에 타고 있는 물건에서 뛰어나오는 아주 작은 불덩이 (19)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을 적은 종이 (21)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인정은 물과 같아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은 없다고들 한다 (23)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거나 출근한 사람에게 주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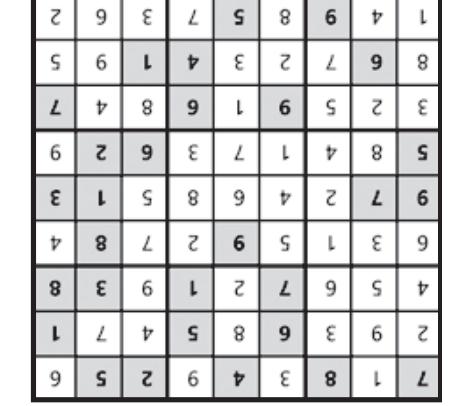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난 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트 뱅크카드와
월드페이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미전역
에이전트 구함
LIBERTY BANKCARD
www.meridianwish.com

Liberty worldpay



대표 : 사라 류 박사

https://en.wikipedia.org/wiki/Dr._Sarah_Sun_Liew

Worldpay, Vantiv,

Npc ISO office owner.

Liberty Bankcard 대표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기타 지역

구인

스시맨 & 주방급구

알리스카, 숙식제공
성실하신분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식쉐프 & 스시맨

알리스카 취업결과사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문의 213.368.2525

Hello Town
**9월
햇산삼
세일**
애틀랜타 산삼
친중시장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구인

렌트
부동산미국
라이프의
모든것

자동차

전문업체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